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28호



清涼



칭하이 무상사 최신 디자인

벽걸이등 “청량”

디자인: 칭하이 무상사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벽걸이등 ‘청량(淸涼)’이 만세등 컬렉션에 새로 추가되었다. 부채꼴 모양으로 단순하고 우아한 형태를 강조한 이 등은 포모사 노간주나무로 만들어졌으며, 니스 칠을 하지 않아 불을 밝히는 한편 천연 향이 퍼져 나와 안락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된다.



초기의 탁상용 만세등 “청량”

디자인: 칭하이 무상사

앞표지 안 / 뒷 표지 / 26 / 48 / 무상예술

청량/ 불 끄는 부채/ '천상의 보석에서 영어 배우기' 행사에서 얻은 것/
'순항 지갑'

2 스승님 말씀

지혜와 행복의 근원에서 휴식하라

4 시

사랑과 평화의 스승님

5 다채로운 이벤트

포모사/ 싱가포르/ 호주/ 한국/ 중국/ 연합 보도/ 미국/ 아르헨티나
포모사/ 남아프리카/ 포모사

16 스승님의 농담

실수는 인간만 하는 게 아냐/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마침내, 거북이가 웃은 까닭은?

18 스승과 제자 사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성모의 마음

20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21 / 25 감로법어

22 특집 기사

90도로 비껴간 흡사태/ 신의 독특한 교육방식/ 진정한 노아의 방주

27 신기한 감응

매순간 위험을 막아주시는 스승님

2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역사를 스승으로 삼으라

36 사랑의 실천

스승님의 사랑이 아프간 난민의 고통에까지 닿다

37 수행의 길목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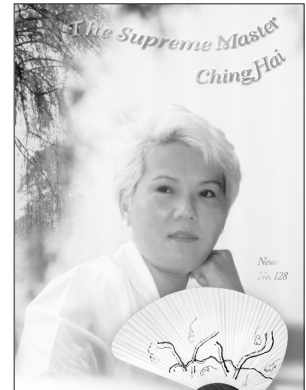
20분 지각의 의미/ 윤회를 초월하기까지

41 지혜어록

우주적인 인터넷 서비스/ 미친 세상 속의 전능한 보호력/ 우주의 힘

42 관음 웹사이트

43 전 세계 연락처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평화의 원천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의 평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 내면에 존재하므로 밖에서 찾는다면,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8호**

출판일자 : 2002. 5. 13.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지혜와 행복의 근원에서 휴식하라

칭하이 무상사/ 1993. 3. 27. 하와이 (원문 영어)

대다수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휴식 시간에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자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잠들 때는 의식이 없어 죽음과 같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명상을 할 때는 의식이 매우 분명해서 우리 자신의 위대함과 우리가 우주의 최고의 근원과 교류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일부분으로서 전 우주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인내심이 많아지고 지혜로워집니다. 그에 따라 불가사의한 많은 일도 해낼 수 있게 되지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주의 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라디오나 TV 통신망과 같은 셈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비를 갖추고 주파수를 맞춘다면, 전체 통신망에 연결되어 수천 마일 밖에서 보내는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TV 수신기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가 아니라 방송국에서 그것을 송출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인의 대열, 우주적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일부로서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해지고 다시는 외롭거나 자신의 유한한 힘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조차 이 우주적인 힘에 의해 보호받고 돌봐지며 도움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인생 최대의 손실이며 우리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우리 내면에 늘 존재하는 이 위대한 힘은 깨어나 봉사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 그 어떤 적의 잔악무도한 행위보다 더 잔인하고 비참한 일입니다.

성인은 우리와 무엇이 다를까요? 성인은 이 힘을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부처가 수천 년 동안 승배의 대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힘을 깨닫고 그들 내면의 보물인 이 위대한 힘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힘 때문에 많은 왕들도 자신의 왕국을 버렸으며, 부처도 왕위를 내놓고 결코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힘으로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할 수도 있었지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보다 더 몸집이 크니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방의 가치는 아름다운 벽과 안전한 지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앉고, 꽃과 유용한 물건들을 두고 편안하게 골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내면을 깨끗이 비우고 내면의 위대한 공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염원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분주한 일상 중에서도 잠시 명상하며 쉬면서 내면의 이 위대한 보물을 찾는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보물 앞에서는 제 아무리 부자라 해도 가난한 거지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손안에 온 우주를 갖게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이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그건 단지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이며,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집착도 없이, 보답도 기대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을 하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예전에 요가난다라는 큰 스승이 있었는데, 그는 “잠들 때 우리는 신과 같고 천사와 같다. 그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아주 순수하고 순결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들 때 내면의 최고의 힘과 접촉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 우리는 내면에 존재하는 무상사와 하나가 되지요. 비록 이것이 무의식적이라 해도, 깨어난 후에는 기분이 훨씬 좋아지며 하루 종일이라도 거뜬히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다섯 시간만 쉬어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지는데, 이것은 우리가 모든 행복의 근원과 지혜의 치유력 안에서 휴식을 취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지는 거지요. 잠잘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진해지며, 그래서 잠잘 때는 다들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가 막 살인을 한 사람이든 일생에서 아주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든 잠잘 때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그가 사랑과 지혜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의식적으로 명상을 하며 쉼 때, 우리 내면의 위대한 스승의 힘을 얼마나 많이 깨달을 것인지 여러분은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작은 노력으로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행복도 커질 것입니다. 잠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며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수면 중에는 우리가 모든 소망을 들어 주는 힘의 근원에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만약 우리가 의식이 깨어 있는 동안 이 힘과 접촉

한다면, 물론 우리는 이 세상 일들을 하면서 좀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점점 줄어들 것이며, 설령 우리 가슴에 어떤 미세한 중요심이 있다 해도 차츰 사라질 것입니다. 이걸 매우 논리적입니다. 무슨 신비스럽거나 어려운 일도 아니고 논쟁의 여지도 없는 일이지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 혹은 어떤 이론을 따라 그들을 구루(스승)로 숭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도 구루로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바로 무상사이니까요. 우리는 내면에 이 무상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지요.

만약 우리가 일만 하고 쉬지 않는다면, 당연히 마음이 산란해질 것입니다. 이런 편중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일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우리 동수들처럼 일도 하고 휴식도 취한다면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세 시간 명상하는 것은 몇 달간의 휴가와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진아인 신, 무상사의 힘과 교류하면서 낮 동안 잃어버린 에너지를 모두 재충전하게 되며, 이는 수면을 통한 충전보다 훨씬 많습니다. 잠잘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미 신, 천사와 같기 때문에 명상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요심이 다시 되살아나고 모든 관계에서 골칫거리와 고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지요. 그 때 우리는 수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결과와 영향을 모두 겪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신과, 신의 권능이 존재하심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이것을 잠잘 때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명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명상이 그 해답이지요. 명상은 깨어 있으면서 잠자는 것이며, 자지 않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 가족관계와 재정문제 등 일상생활을 처리하는 방법과 생사(生死)에 관한 모든 답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도, 경기 침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실직할까 겁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되어 발을 동동거리며

자신의 몫이 아닌 것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황이 어떻든 늘 행복하며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병마와 슬픔도 자동적으로 우리 곁을 떠나고 모든 욕망들도 이별을 고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문제는 단지 실직이나 아직 하와이에는 없는 지하철을 타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 속의 불만족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데, 요청하거나 반기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상을 통해서만 알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매일 닥치는 온갖 상황들에 대처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란스럽지 않으며,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신을 알면, 즉 우리가 신을 우리의 목자로 맞이하면, 우리는 아무런 욕망도 없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고자 합니다. 그뿐입니다. 우리 동기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이 세상을 위해 우리 자신의 경비와 시간,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막기 원하며 국가 간, 혹은 형제자매들 간의 전쟁과 증오심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또한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입니다.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이 강연을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news/128/mt.htm> (포모사)
<http://Godsdirectcontact.org/eng/news/128/mt.htm> (미국)

사랑과 평화의 스승님



방편법 수행자 스티븐 케로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리우콕 감화원 재소자 (원문 영어)

성스러운 칭하이 무상사님
 평화와 사랑의 화신인 당신께
 하늘의 축복 함께 하시길
 이 갇힌 몸에 위안을 주시길 청하오며
 언제나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외로울 때 저를 일깨워주소서 “내가 여기 있노라”고
 미움에 빠질 때 저를 일깨워주소서 “내가 사랑하고 돌보노라”고
 욕망에 허덕일 때 저를 일깨워주소서 “청정하라”고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빛이 있노라”는 당신의 말씀을 믿사오니
 심신이 고통스러울 때 저를 일깨워주소서 “평온을 찾으라”고
 절망에 허우적일 때 저를 일깨워주소서
 “신과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고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의 힘으로 명상하던 그 순간부터
 스승님, 내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나이다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더욱 큰 사랑과 위안을 얻었나이다

칭하이 스승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모든 사랑과 관심에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신은 하루 밤새 금발 미인을 창조하셨군요!



포모사 소식

칭하이 데이 경축 행사

[시후] 2001년 10월 21일 일요일, 동수들은 시후센터에서 외부 손님들과 함께 칭하이 데이를 경축했다!

이 날 아침, 동수들은 평소처럼 대나무 숲에서 명상하면서 신의 사랑과 빛을 충전했다. 풍성한 점심 식사 후에는 모두들 모여 스승님의 전 세계적인 자선활동과 수상경력을 소개하는 비디오를 시청했다. 1993년 10월 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시의 프랭크 파시 시장은 스승님께 세계 평화상과 호놀룰루 시민권을 수여하고 10월 25일을 '칭하이 데이'로 선포했다. 후에 호놀룰루 시 후말루히아 공원에는 세계평화에 기여하신 스승님의 공헌과 노력, 인류애를 기리기 위해 스승님의 청동 조각상이 세워졌다. 파시 시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칭하이 스승님같은 분이 각국에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평화와 사랑으로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칭하이 데이는 이렇게 유래되었다. 비디오 테이프에는 스승님의 시와 음악으로 꾸며진 자선콘서트들도 담겨 있었으며, 콘서트의 감미로운 음악 속에서 비디오 시청이 끝났다.

오후에는 야외 명상 홀에서 단체명상을 하고 이어 경축행사가 열렸는데 행사를 주관한 관음사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평화의 메시지를 대중들과 나눴다. 9.11 미국 참사 후 스승님은 세상 사람들의 각성을 촉구하셨다. "인류가 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 관음사자의 좌우명이 되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느 곳에서든 묵묵히 오불을 외워 평화의 기운을 널리 퍼트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우리가 수행의 즐거운 기운과 명상의 빛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행복한 수행자가 되길 희망하셨다. 경기침체로 어수선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해 더 이상 전쟁과 기아, 빈곤에 허덕이지 않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길 희망했다.



간소하지만 엄숙하고 뜻 깊은 칭하이 데이 경축행사



기초 사진술을 열심히 배우고 있는 동수들



궁전을 본 뜬 임시 전시장으로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천의의 아름다운 광채가 돋보인다

사진 강습회

이 날, 타이베이 뉴스그룹은 관심 있는 동수들을 초청해 시후센터에서 사진 강습회를 열고 카메라의 기본 구조와 기초적인 사진기법을 가르쳤다.



강사인 왕 사형은 빠르고 효과적인 사진기술 학습을 위해 미리 강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준비해 왔다. 또 노출 도수가 다양한 필름들과 예전에 찍은 행사 사진들을 참고 자료로 전시하고 동수들이 가져온 다양한 카메라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왕 사형의 세세한 해설을 다 듣고 난 동수들은 바로 ‘칭하이 데이 행사’를 주제로 촬영 실습에 들어갔다. 동수들은 현장 강습과 상호교류를 통해 단시간 내에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궁극적으로는 향후 구조활동이 있을 때 사진 촬영을 도와 스승님의 사랑의 활동을 보다 완벽하게 기록하길 희망했다.

예술 창작품 전시회

온 우주가 경축하는 칭하이 데이를 맞이하여 SM천의 팀은 ‘천의 회고전’을 특별 기획해 스승님이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디자인하신 첫번

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SM천의 시리즈를 선보였다. 이 행사는 대중들에게 천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천상의 영광으로 디자인된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상의 보석 팀도 ‘생명의 빛에 감싸여’라는 제목으로 사랑으로 가득 찬 천상의 보석 전시회를 열었다. 보석 팀은 또한 ‘사랑의 잠언’을 준비해 즉석에서 뽑아 읽을 수 있게 했다. 전시회장 주변에는 스승님의 그림과 만세등도 전시되어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었다.



싱가포르 소식

국내선과 칭하이 데이 기념 행사

[싱가포르] 2001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계평화와 칭하이 데이를 기념하는 국내선이 코손 하버뷰 호텔에서 열렸다. 경제적이고 선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스승님의 안내 덕분이었다. 호텔은 새로 단장해 명상 홀의 카펫도 완전히 새 것이었다. 선 행사 동안 동수들 모두 안정되고 평온한 마음으로 명상에 집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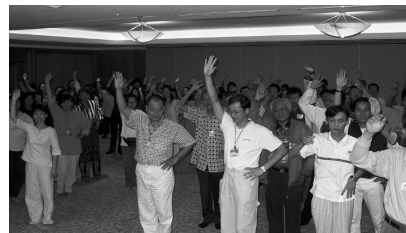
칭하이 데이 행사

선상 마지막 날에는 칭하이 데이 행사를 열고 동수들의 친구와 가족들을 초청해 게임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춤으로 행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대중들의 넘치는 에너지로 고양되었으며, 이어서 울려 퍼진 가슴을 녹이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은 분위기를 한층 더 예술적이고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한 동수가 즉석에서 작곡해 스승님께 바친 ‘오직 이 길 뿐’이란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동수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인류가 보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이해하길 바랍니다”라는 스승님의 최근 메시지를 카드로 나눠 재배열하는 게임을 했다. 이 게임은 웃음을 자아냈지만, 한편으로는 스승님의 말씀을

바로 새길 수 있었다. 두 번째 게임은 서로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는 것이었는데, 원은 점점 커져 나중에는 참가자들이 모두 합세하게 되었고 명



파라파라 댄스로 고양되다



동수들이 칭하이 데이를 기쁜 마음으로 기념하다

상 홀에는 일치 단결된 마음으로 파사로운 분위기를 흘렸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칭하이 데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1993년 호놀룰루

시장이 10월 25일을 칭하이 데이로 선포한 짙막한 비디오를 시청한 후, 세계평화를 위해 잠시 묵념했다. 마지막으로 몇몇 동수들을 청해 칭하이 데이 축하 케이크를 절단하고, 모두 이 날을 위해 특별히 작곡된 '당신은 유일한 분'이란 노래를 손뼉치며 부르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호주 소식

'의식있는 삶' 박람회와 칭하이 데이 축제

[퍼스] 2001년 10월 18일부터 21일 까지 클레몬트 전시관에서는 연례 행사인 '의식있는 삶' 박람회가 개최되어



퍼스 동수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나눌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 '의식있는 삶' 박람회 모습

예년처럼 수많은 단체가 참가해 구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퍼스 동수들은 이번 행사 동안 11월에 센터에서 열릴 비디오 강연회에 관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서 감회가 남달랐다. 동수들은 이 행사에서 수백 장의 전단지와 더불어 견본책도 나눠 주었다.

전시회에 참가한 한 여성은 '관음법문'이란 문구를 보고 찾아와서는 관음에 대한 비전을 자주 봤노라고 말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전단지를 보다가 곧 강연회가 있을 예정이란 소식을 접하고는 얼굴이 환해지면서 한편으로는 강연회에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하기도 했다.

박람회가 끝난 후 곧 칭하이 데이 행사가 이어졌다. 오랜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센터에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승님 덕분에 이처럼 많은 용기와 힘,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과 열린 두 팔로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길 희망한다.

한국 소식

칭하이 데이 행사와 영동 국내선

[서울] 전 세계가 미국 참사로 슬픔에 잠긴 가운데, 한국 동수들은 신실하게 명상하면서 차분하게 칭하이 데이 행사를 치렀다.

우리는 스승님과 미국 동수들의 구조

활동을 담은 비디오를 동시 통역으로 시청했는데, 비디오를 보면서 서울 동수들은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과 현지 동수들의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큰 감동을 받았다. 이어 공연 프로그램과 게임을 하면서 평화와 스승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대형 버스 한 대를 꽉 채운 동수들이 선행사를 위해 영동센터로 향했다.

중국 소식

중국에서 불어온 사랑과 축복



[간수] 10월 25일 칭하이 데이를 기념하기 위해 중국 간수 지방 동수들은 경축행사를 가졌다.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동수들은 많은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모두들 스승님에 대한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또한 스승님의 축복에 흠뻑 잠길 수 있었다.



연합 보도

[포모사 까오핑] 2001년 10월 24일 까오핑 동수들은 단체명상 후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폭죽을 터트렸다.

[미국 조지아] 2001년 10월 28일 일요일, 우리는 단체명상 후 칭하이 데이 행사를 했다. 동수들은 맛있는 채식요리를 많이 준비해 와 서로 나눠 먹었는데, 몇몇 동수들은 스승님의 요리책인 “Supreme Kitchen”을 보고 요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 모여 스승님의 비디오를 보면서 우리와 전 세계를 향한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의 상서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동안, 모두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빛이 퍼져 나오고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2001년 10월 28일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이 충만한 가운데 센터에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포모사 까오핑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미국 조지아

[멕시코 몬트레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스승님께

이 특별한 칭하이 데이를 맞아 전 세계에 사랑을 전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리
고 매순간을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 희생하시는 스승님
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승님과 같은 아름다운 존
재가 계신다는 것에도 또한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
들이 당신의 사랑을 본받아 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 되
길 저희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용
기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자비심과 완벽함, 겸손과 친절의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스승님을 사랑하는 몬테리 센터 동수 일동 올림

[미국 오리건]

사랑하는 스승님께

사랑으로 칭하이 데이를 축하드리
며, 세상을 돕는 스승님께 언제나
신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는 당신이 그립고, 당신이 필요
하며,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리건 센터 올림

[미국 애리조나]

사랑하는 스승님 이 뜻 깊은 날,
저희 마음은 스승님과 함께 있습니다.
기쁘고 아름다운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스승님, 저희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해피 칭하이 데이!

애리조나 센터

[미국 텍사스 휴스턴]

사랑하는 스승님

지난 몇 년 간 당신의 아이들은 크나큰 행운으로 10
월 25일 칭하이 데이를 스승님과 함께 경축할 수 있었
습니다. 마치 지상낙원과도 같았던 그 시절과, 또한 스
승님과 함께 나눈 행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
희는 요즘 스승님께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필요로 하
는 세상을 돌보시느라 너무나 힘드시다는 걸 잘 압니
다. 이 특별한 날을 예전처럼 함께 보내지 못하는 이유
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는 영원히 이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으로 저희는 세상이 절실히 필
요로 하는 착한 자녀, 훌륭한 시민으로서 당신이 주신
사랑과 가르침을 온 세상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칭하이 데이를 축하드립니다!
텍사스 휴스턴 제자 일동

[스웨덴]

사랑하는 스승님께

황금 시대의 스웨덴 동수들은 스승님께서 아름다운 칭하이 데이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신이 창조하신 만물이 꽃을 피우고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과 함께 평화가 진동하길 바랍니다.

무한한 사랑과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사랑의 진동이 굽주린 영혼을 위로하다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펜타곤의 9.11 사건 이후, 로스앤젤레스 동수들은 스승님의 지시에 따라 매일 여러 곳에서 단체명상을 했다. 동수들은 또한 이 힘든 시기에 보다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진동을 전하고자 스승님의 사진과 관음법문에 대한 정보를 담은 수천 장의 전단지 및 소책자와 함께 우리의 TV 방송과 웹사이트, 전화번호가 인쇄된 책갈피도 준비했다.

2001 세계 채식 축제

10월은 각계각층 사람들이 가을을 맞이해 많은 축제를 여는 달이다. 올해 10월도 어김없이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는데, 행사장들은 모두 로스앤젤레스 센터에서 운전해서 갈 수 있는 지역권이었다.

10월 축제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참가한 행사는 완전채식의 생활방식을 축하하는 세계 채식 축제였다. 이 축제는 매년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열리는데,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한다. 할리우드 사람들은 대체로 쉽사리 동요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 아마도 최근 발생한 미국 재난으로 모두들 생사 문제에 관해 성찰을 하게 된 듯 했다.

일부 동수들은 세계무역센터 폭발 현장의 9.11 구호소에서 음식을 나눠 주는 우리 구호팀의 사진을 콜라주로 만들었는데, 축제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관한 안내문을 자발적으로 가져갔으며, 한편으로는 계속 남아 ‘예술과 영성’ TV프로그램과 그 외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기도 했다.

수년 동안 채식을 해 온 한 젊은 여성은 우리 부스에 다가와 스승님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최근 그녀는 관음보살에 관한 내면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동일한 이름의 ‘관음’이란 것에 대해 묘하다고 생각했다.

재미 아시아인들의 중추절

그 다음 일요일에는 중국계 미국인이 많이 사는 L.A 부근에서 열린 ‘아

시아인들의 중추절’에 참가했다. 참가한 부스들은 오색 깃발들이 부드러운 가을 바람에 나부끼는 안온한 분위기 속에 서로 마주보며 마치 작은 성들처럼 원을 형성했다.

이 행사에서도 다양한 사진 콜라주와 예술화랑을 형성해 사람들은 9.11 참사의 실상을 생생히 접할 수 있었으며, 수천 명이 우리 부스를 방문해 기쁜 마음으로 전단지와 뉴스잡지, 무료 견본책자를 받아갔다.

서울 국제공원에서 열린 한인 축제

2001년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에서는 제25회 연례 한인 축제가 열렸다. L.A 동수들은 반짝이는 크리스털 장신구와 은구슬로 장식한 아름다운 깃발과 스승님의 대형법상을 준비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코리아타운 사람들은 관음법문으로 큰 발걸음을 옮겼다! 6십만 명이 넘는 이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모두 영적으로 매우 고양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행법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부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한국 사람들에게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하기 위해 매우 부드럽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했다. 다행히도 스승님의 아름다운 얼굴이 그들을 상냥하게 맞이해 수백 명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국 동수들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했다.

4일 동안의 한인 축제 동안, 수천 장의 전단지과 견본책, 그리고 기타 출판물이 배부되었다.

요약

이 세 차례의 축제가 끝난 후 L.A 동수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피곤했지만, 이 지역의 진동을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매우 흡족했다. 우리가 나눠 준 수천, 수만 장의 스승님 사진과 자료들은 대중들에게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으며, 우리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날수록 이 물질세계의 부정적인 힘이 사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 플로리다 소식

채식 축제에서 진리의 씨앗을 뿌리다



[사라소타] 플로리다 동수들은 2001년 10월 14일 일요일 사라소타 동물 보호협회가 후원하는 제 6회 채식 축제에 참여했다. 이 협회는 동물의 권리와 복지 및 서식지 보호 운동을 전개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이 대중적인 행사의 목적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데 있다.

축제는 아름다운 가을 날, 드넓은 잔디밭과 무성한 나무로 둘러싸인 호화로운 필리피 산장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는 음악 공연을 비롯한 각종 공연 이벤트와 교육 자료 전시회 등 다양한 관련 행사들이 준비되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라소타 채식식당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마련한 맛있는 채식요리들을 맛보았다.

행사장에 도착해 음식을 차리기 위해 자리를 찾던 우리는 주최측에서 가장



사라소타 동물 보호협회가 주관하는 제 6회 채식 축제에 참석한 플로리다 동수들

좋은 자리를 배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자리는 음식 코너 중 첫번째 테이블이어서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스승님의 대형 포스터와 비디오를 볼 수 있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 칭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완전 채식주의자였다. 또한 어떻게 이처럼 맛있는 채식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수없이 질문 받기도 했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며, 진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안배해 주신 신께도 감사드렸다.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 칭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완전 채식주의자였다. 또한 어떻게 이처럼 맛있는 채식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수없이 질문 받기도 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 칭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완전 채식주의자였다.

또한 어떻게 이처럼 맛있는 채식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수없이 질문 받기도 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우리 음식에 대해 칭찬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완전 채식주의자였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대단히 기쁘며, 진리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가장 이상적인 자리를 안배해 주신 신께도 감사드렸다.

아르헨티나 소식

아르헨티나 시민들이 스승님께 마음의 문을 열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동수들은 9.11 미국에서 발생한 비극으로 비탄에 젖은 가운데서도 진리를 전해 이 지구의 영성과 물질 및 정신을 고양시킬 것을 다짐하고 최근 세 도시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첫번째 강연회는 지난번에도 행사를 치렀던 코르도바에서 열렸다. 이번에도 방편법 수행자인 신실한 한 사저의 집에서 묵으면서 수많은 코르도바의 사형 사저들의 도움을 받아 강연회를 계획하고 개최했다. 강연회는 '일월(日月) 채식식당'에서 열렸는데, 우리는 이를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했으며, 코르도바 국영 라디오 방송국의 안드리아 에반젤리스티 기자와 가진 20분간의 인터뷰는 10여 지방에 방송되기도 했다.

많은 참석자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공감한 가운데 참석자의 90%가 방편법을 배웠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다음으로 최근 들어 매월 강연회가 열리는 유키오 미시마 문화센터에서 2차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의 주제는 '업장을 씻는 법'이었는데, 우리는 스승님의 여러 비디오에서 내용을 발췌해 상영했다. 진리의 메시지에 강하게 이끌린 사람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왔다. 인터넷에서 관음보살에 대한 정보를 찾다가 스승님을 접하게 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로 여기고 강연회를 찾아왔다. 방편법 전수가 끝난 후 우리는 관음가족이 된 새로운 사형사저들을 따듯이 맞았다.

세 번째 강연회는 신실한 구도자인 파울라 안토난자스 여사의 요청으로 산타페에서 4킬로 떨어진 작은 지방인 산토 토메에서 열렸다. 안토난자스 여사는 '자기(自己-Oneself)'라는 잡지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소개를 보고 나서 방편법을 배우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찾아왔다. 법피로 충만해진 그녀는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자기 집을 강연회 장소로 제공했다. 그녀의 식구들 역시 집과 자신들의 마음을 스승님께 활짝 열고 이번 행사를 위해 우리가 그들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우리는 산타페와 산토 토메에서 전단지들을 배포하고 강연회에 대한 소식을 신문매체에 실었다. 행사 당일, 강연장은 순수한 구도자들로 꽉 찼으며 모두들 성심으로 비디오를 시청했다. 또한 채식주의자인 안토난자스 여사의 모친과 할머니, 이모를 비롯한 참석자의 99%가 방편법을 전수받았다.

한 청년은 10살 때 특이한 체험을 했는데, 교회에 들어선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몸에서 빛이 발산되는 것을 보고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고, 그는 미친 사람으로 추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의 '일월' 채식 식당에서 열린 강연회



유키오 미시마 문화센터에서 열린 정기 강연회



산타페 근처의 산토 토메 강연회

급될까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다. 또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 그 후로는 다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는 다른 수행단체에 가입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준 스승님에 관한 전단지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그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곤 하던 일을 제쳐 두고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는 우

리와 말이 통한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와 얘기 나누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강연회는 대단히 성공적이어서 장소를 제공할 테니 산타페에서 다시 한번 강연회를 열자는 요청도 들어왔다. 집주인인 파울라 씨는 입문을 학수고대하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녀 집에서 단체명상을 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그녀의 두 아들이 자발적으로 육식을 거부한다고 얘기했다.

스승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갖고 그곳을 떠나며 우리는 마음 속 깊이 스승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다시없이 좋은 이 기회에 감사했다.

포모사 소식

과학 기술을 돕는 영성의 고양



[까오핑] 포모사 최남단인 핑퐁 형 춘에 위치한 대만 전력공사 제3핵능 발전소는 고도의 과학기술과 고급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각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인재들로 인해 발전소 부근은 포모사 인재들의 집결지 중 한 곳이 되었다. 연구소 측은 유명인사나 전문가들을 초빙해 임원들의 영성 고양을 통한 전문성 함양을 돕고 있다.

2001년 10월 31일 발전소 측은 특별 세미나를 준비해 스승님의 유엔 강연인 ‘이 세상 너머의 신비’를 상영하기로 했다. 당일 일부 동수들은 강연장을 준비하기 위해 먼저 도착해 점심시간을 이용해 스승님의 견본책을 나눠 주었다. 동수들이 가는 곳마다 직원들은 따뜻하게 맞아 주었으며, 몇몇 사람들의 얼굴에 떠오른 신실한 열망은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세미나는 오후 1시에 시작되



대만 전력공사 제3핵능 발전소에서의 흥법활동

었다. 먼저 제3핵능 발전소에 근무하는 천 사형이 무대에 올라 관음법문 수행을 통해 얻은 이로움과 소감을 발표하고, 이어서 스승님의 비디오가 상영되자 청중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에 잠긴 채 주의깊게 시청했다.

비디오 시청이 끝난 후 관음사자는 관음법문의 우수함을 활발하고 유머스럽게 설명해 청중들의 많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었다. 남아서 방편법을 배운 많은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신의 빛을 체험하며 신실하게 명상했다. “이처럼 훌륭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관음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의 성스런 축복 아래 이번 흥법활동은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다. 고도의 과학 기술은 고도의 영적 발전이 뒷받침되어야만 자신과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를 통해 첨단 과학기술자들이 영성 발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남아프리카 소식

청결은 성인의 품성



[요하네스버그]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은 한 불교단체로부터 넓은 강당을 빌려 센터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산 정상에 위치한 까닭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곳이지만, 주변은 이웃들의 생활이 빈곤하고 센터 주위 거리는 쓰레기더미가 되기 일쑤였다. 게다가 단체명상하는 동안에는 종종 바깥에서 파티가 자주 열려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함께 술에 취한 사람들로 인해 소란스러웠다. 단체명상은 내면에 집중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파티에 참가하러 오는 것이라고 농담할 정도였다.

그러나 우리는 센터를 옮기는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청결의 모범을 보여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기로 결심했다. 몇 차례에 걸쳐 우리는 주변 청소의 날을 정해 센터 주위 거리와 공원을 청소했다. 우리는 단체의 상징인 노란색과 녹색 조끼를 입고 일체의 청소도구를 갖추고 작은 가방에 견본책을 넣어 다녔는데, 우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고마워한 주민들이 어떤 단체인지 묻곤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를 도와 청소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공원이 깨끗하게 변하자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아도 부모들은 큰 걱정을 덜고 안심하게 되었다.

한번은 두 어린 소녀가 동수에게 다가와 견본책을 받아갔다. 그들은 평소 공원이 너무 더러워 좀처럼 놀러 나오지 못했는데, 그날은 우리가 청소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한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청결은 성인의 품성이라고 우리 엄마도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공원에서 놀 수 있어요.” 한 동수의 딸은 아직 입문하지 않았지만 공원이 갈수록 깨끗해지는 모습이 보기 좋아 청소를 할 때마다 우리를 도왔다. 이는 스승님이 훌륭한 모범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듯이 우리의 좋은 품성과 신실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는 사례였다.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이 센터 주변의 공원과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

감로법어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상황이든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면 마음이 평온해지며, 그러면 여러분의 힘과 지혜에 대한 시험을 거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청하이 무상사/ 1997. 3. 19.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원문 영어)



남아프리카 소식

리우콥 감화원에 신의 메시지를 전하다

[요하네스버그] 2001년 5월 요하네스버그 동수들은 신의 완벽한 안배 덕분에 리우콥 감화원을 방문할 수 있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방문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났었는데, 시기 적절하게 신의 영감을 받은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교도소 흥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먼저 감화원 간부들을 만나 우리 단체와 스승님을 소개하고, 스승님의 1999년 중동 아프리카 순회 강연 중 '사랑의 길을 걷자' 요하네스버그 강연을 비디오로 시청했다. 관계자들은 조용히 집중하며 스승님의 말씀과 보이지 않는 축복 속에 잠겨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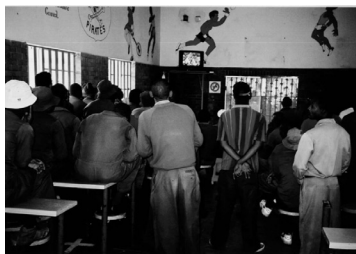
비디오 시청 후 우리는 신실한 많은 질문에 성심껏 답해주었다. 나중에 다시 감화원을 방문했을 때는 몇몇 간부들에게 방편법을 전수하고 채식 샌드위치와 전해 주었다.

이때 우리는 약 1천 5백 명이 수감되어 있는 리우콥 감화원에 1인당 한 권씩 나눠 줄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을 준비해갔다. 몇 주 후 우리는 다시 관심 있는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매우 집중된 모습으로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그들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뿜어 나오고 있었다. 또한 그들의 질문을 통해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순수한지 엿볼 수 있었다. 한 동수가 1,500 켈레의 양말을 선물했는데, 이 뜻깊은 선물을 받은 재소자들은 얼굴에 행복과 기쁨의 미소를 띄워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다음 방문 때 방편법을 가르쳐 주게 되었는데, 이것 또한 방편법을 배우려는 그들의 신실함을 확신할 수 있는 스승님의 또 다른 안배라고 생각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리우콥 감화원을 방문해 질의응답과 비디오 상영, 단체명상, 방편법 전수를 하고 있다. 최근 행사에서 한 수감자는 단상에 나와 전에는 견본책이나 비디오를 보며 많은 의심을 했었지만, 이제는 칭하이 스승님을 통해 전해진 신의 권능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 소감을 얘기했다.

도움이 가장 절실하면서 또한 그 은총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에 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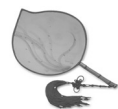


스승님의 비디오를 시청하는 리우콥 감화원 재소자들

갈로방어 

칭하이 무상사/ 1996. 12. 28.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원문 영어)

우리는 어떤 문제든 헤쳐 극복할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강하고, 우리의 목적과 이상이 고귀하고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만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지요.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포모사 소식


소년범에게 관심을!

[타이난] 포모사 동수들은 매주 교도소를 방문, 상담하는 외에도 영적 성장의 좌절감으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두고 이 길 잃은 양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할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2001년 10월 12일 타이난과 창화 동수들은 창화 소년원을 방문해 2시간 동안 다채로운 문예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 즐거운 만남의 자리를 통해 재소자들간의 거리감을 좁히는 한편, 동수들은 그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깨달아 자신과 남을 도울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발전하길 격려했다.



동수들이 문예 프로그램을 통해 창화 소년원 재소자들에게 신의 사랑을 전하다

스승님의 농담 



바침개, 거북이가 웃은 까닭은?

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옛날 어떤 숲에 심한 가뭄이 들어 동물들이 굶주림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숲속의 왕 사자는 동물들을 모두 모아 백성들을 살릴 방법을 모색했어요. 그러자 어떤 동물들이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 살아남으려면 서로를 먹는 수밖에 없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즉, 한 사람씩 우스운 얘기를 해서 모두를 웃기기로 한 거예요. 만약 재미가 없어 한 동물이라도 웃지 않으면, 농담을 한 동물이 잡아먹히기로 했지요.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코끼리가 나와서 농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웃겼어요! 모두들 데굴데굴 구르고 배를 움켜 쥐며 웃었죠. 하지만 한 동물만 웃지 않았어요. 바로 거북이었어

요. 세상에! 다들 코끼리가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농담은 정말 웃겼거든요. 하지만 규칙은 규칙! 거북이가 웃지 않았기 때문에 코끼리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선 기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린 역시 아주 웃긴 농담을 했어요. 모두들 웃기 바빴지만, 거북이만 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규칙대로 또 기린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기는 계속되어 이제는 거의 모든 동물들이 잡아먹히고, 얼마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원숭이 차례가 되었습니다. 원숭이는 너무나 무서워서 잔뜩 긴장하고 있었어요. 온몸을 떨면서 거북이를 쳐다보며 감히 말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거북이가 웃기 시작했어요.

“하하하하! 아이구, 하하하……! 너무 웃긴다! 코끼리, 정말 웃긴다!”



실수는 인간만 하는 게 아냐

청하이 무상사/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최근 신문에 비행기 사고로 인명을 잃은 사건들에 대해 많은 보도가 실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비행기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과 항공사는 머리를 맞대고 무인 실험 비행기를 제작하는데 골몰하게 되었지요. 완전 자동화, 전산화, 컴퓨터 음성 등 모든 것을 갖춘 비행기 같은 것 말이에요.

마침내 최초의 비행기가 발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흥분되었고, 최초로 그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 승객들은 귀빈이 된 기분이었죠. 사람들이 모두 탑승하자 문이 잠기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공중에 떠올라 있을 때,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이 비행기에 탑승해 주신 신사 숙녀 여러분, 무인 전자조종 비행기에 최초로 탑승하신 걸 환영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인간이 조종하는 비행기로 인한 사고를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비행기는 자동 조종되므로 여러분의

여행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안전벨트를 매신 후 편안한 여행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 비행기는 완전 자동 조종되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아무 이상이, 아무 이상이 ……” 이에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출구를 찾으려 소동이 벌어지자, 다시 백업 시스템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하고 차분한 목소리를 합성한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젠 달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

여러분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정말 아무것도 잘못될 게 없습니다. 이 농담은 다소 신랄하지만, 꽤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냐(?)

청하이 무상사/ 2001. 6. 13. 미국 플로리다 (원문 영어)

한 도둑이 어떤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두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자, 자기 귀가 잘못되었나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곤 계속 그 집의 물건들을 수집했죠.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또 들린 목소리는 좀 전보다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귀가 잘못된 게 아니란 걸 알고 그 목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거기엔 앵무새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앵무새에게 물었어요. “금방 말한 게 너였냐?” 그러자 앵무새가 시인했

어요. “그래요. 당신에게 경고를 하려구요.” “기가 막혀서! 너는 도대체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도둑이 말하자 앵무새가 답했습니다. “모세요!” 도둑은 웃음을 터트리며 말했어요. “하! 어떤 바보같은 사람들이 모세라고 이름지은 거야?” 앵무새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여기 롯트바일러에게 ‘예수’라고 이름지은 사람들인데요!” (롯데바일러는 150 파운드나 나가는 1급 경비견인데, 여기 나온 개 이름이 ‘예수’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 개가 어디선가 이 도둑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이죠.)





부드럽고 자애로운



성모의 마음

숨 이추 사저/ 포모사 타이난

1989년 스승님께 입문했을 때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입문한 후 나는 매일 법열(法悅)이 충만하게 되었다. 일요일과 공휴일에 시간이 날 때마다 나는 시후 센터에 잠깐씩 들렀다가 저녁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지금도 입문하던 날이 기억난다. 이란 센터 산 위에서 입문식이 열렸는데, 입문식이 다 끝났을 때는 꽤 늦은 시각이었다. 산길이 제법 길었던 탓에 모두들 작은 승합차에 타려고 야단법석이었다. 내적인 축복에 가득 찼던 나는 대중들 틈에 끼어 서두르고 싶지 않았다. 결국 언니와 나만 남아서 산길을 내려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얀 세단이 우리 옆에 멈춰 섰다. 차창이 열리자 스승님이 그 안에서 미소 띤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타고 갈 차가 없는가 보군요? 여기 과자와 사탕을 받아요.” 다음 순간 우리는 양손 가득히 과자와 사탕을 받게 되었고, 감동과 기쁨에 벅찬 나머지 그저 스승님을 향해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차안의 누군가가 곧 행사팀 차량이 와서 우리를 태워줄 거라고 스승님께 말씀드리자 스승님은 그제야 작별인사를 하시고 떠나셨다. 얼마 지나지 않아 행사팀 차가 왔고 우리는 산 밑까지 타고 갈 수 있었다.

또 한번은 언니와 내가 시후 센터에 막 도착해서 ‘작은 공원’의 화장실 옆을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스승님이 나타나시더니 우리를 그윽하게 바라보셨다. 우리는 스승님께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대나무 숲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언니는 센터에 오는 도중 차멀미 때문에 몸이 많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오셔서 언니를 축복하셨고, 언니는 그 후 한결 편안해졌다는 것이다.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에 나는 정말 놀라웠다.

뽄뽄기는 정말 힘들어

하루는 스승님이 센터의 작은 공원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동수들에 의해 시야가 가린 나는 스승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펄쩍 펄쩍 뛰었다. 하지만 앞에 있는 동수들이 너무 커서 스승님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하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스승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다. “내가 보이지 않나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굽혀 주세요.” 모두가 무릎을 굽혀 앉자 스승님의 미소 짓는 얼굴이 보였고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또 한번은 정문에서 스승님을 배웅하고 있을 때였다. 나와 언니는 스승님이 타신 차의 창문 바로 옆에서 배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승님께서 정문 바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바퀴를 조심하세요! 발 다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스승님은 출발하셨다. 그 후 정문 바로 가까이 있던 사저 한 사람이 갑자기 문의 바퀴가 움직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발을 다칠 뻔했다. 하지만 좀 전 스승님께서 주의를 주신 덕분에 바퀴는 간발의 차이로 그녀의 발가락을 비껴갔다. 그제야 우리는 스승님의 크고 세심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떠나실 때조차 스승님은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제자들을 돌보는 걸 잊지 않으셨던 것이다.

1990년에는 센터 개량보수 작업이 진행되어 꽃과 잔디를 많이 심었다. 작은 공원에 새로 잔디를 까는 작업을 하면서 동수들은 네모 반듯하게 잔디 떼를 잘라 사방 60센티미터 간격으로 깔고 있었다. 사저들이 정확히 계산된 간격으로 잔디를 땅에 심는 것을 보고 우리도 똑같이 따라했다. 하지만 나중에 스승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 “여러분은 지혜와 사랑으로 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아무렇게나 일을 하면,

나중에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심은 잔디를 보세요. 잔디의 간격들이 양자강 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새 잔디가 언제 자라겠습니까? 그리고 잔디 밑의 땅이 이렇게 말라있으면, 잔디가 어떻게 물을 흡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심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우리는 농구장 주변에 한국 잔디를 심게 되었는데, 마침 스승님으로부터 잔디 심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스승님은 우리에게 잔디를 작게 네모나게 자를 필요 없이 끝이 비죽비죽 나오더라도 부드럽게 나누고, 심기 전에 흙을 축축하게 물로 적신 다음 잔디를 지그재그 형태로 나란히 놓되 잔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잔디 사이에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하셨다. 새가 너무 벌 어지거나 좁으면 잔디의 성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중용’을 지켜야 한다. 다음으로는 심은 잔디 위에 흙을 약간 뿌린 후 다시 물을 뿌려 축축하게 만든다. 그리고 매일 잔디에 물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후 우리는 매우 빠르게 무성히 자라 푸르게 변하는 잔디를 보게 되었는데, 작은 공원에 드문드문 심어진 메마른 잔디와는 완전히 달랐다. 결국 우리는 작은 공원의 잔디를 모두 파내고 다시 심어야 했다.

잔디를 심는 그런 사소한 일 속에서도 나는 잔디에 대한 스승님의 세심한 사랑과 일에 대한 자세를 볼 수 있었다. 비록 질척질척한 흙에 발을 넣고 잔디를 심는 일은 다소 번거로웠지만, 잔디가 상생작용으로 촘촘히 자라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 이 일로부터 나는 지혜와 세심한 사랑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주변 사물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스승님은 대중들을 데리고 대나무 숲으로 가고 있었는데, 나는 스승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갑자기 스승님이 멈춰 서더니 우리에게도 멈추라고 말씀하셨다. 개미떼들이 우리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스승님은 우리가 그들을 밟을까 걱정하시곤 다른 길로 돌리러 가셨다. 스승님의 위대함은 겉보기에 사소한 일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시고 당신 주변의 모든 존재에 대해 항상 무한한 사랑과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 해, 한 해 동안 나는 센터에 들릴 때마다 센터 일을 돕곤 했다. 어느 날은 유리 집을 짓고 있을 때 몇몇

사저들과 함께 벽돌과 돌을 나르는 일을 돕게 되었다. 우리는 평소 펜보다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이 거의 없었던 ‘서생’이었기 때문에 벽돌을 몇 개 옮기고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 옮기고 있었는데, 얼마 후 스승님이 과자와 사탕, 초콜릿, 음료수가 든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나타나 우리에게 잠깐 쉬면서 음료와 과자를 들라고 하셨다. 스승님은 웃으면서 “귀부인들께서 벽돌 몇 개를 나르느라 이렇게 고생하는군요!”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부끄러운 나머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었지만, 마음 속으로는 우리 연약한 서생들을 걱정하신 스승님이 축복과 격려를 해주시고자 오셨다는 알고 있었다. 그 후로 더욱 열심히 일한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지금 정확히 몇 시인가요?”

1991년 어느 날, 나는 명상 장소를 잘못 찾아가 백화림으로 가게 되었다. 잘못 왔다는 것을 알고 막 떠나려던 참인데 스승님이 백화림에서 강연하러 오신다는 안내방송이 들렸다. 그래서 나는 꼭대기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명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많은 동수들이 몰려오더니, 생각지도 않게 내 앞 오른쪽에 비디오 장치와 마이크, 스승님의 의자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와! 여태까지 이렇게 스승님 가까이에 앉은 적이 없었는데, 이런 행운이!’ 속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모두가 명상을 시작하자 나도 눈을 감고 명상을 했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참! 벌써 12시가 되었는데, 1시에 대명상홀 호법을 서기로 되어 있는데 …… 스승님이 계속 말씀 중이면 어떻게 스승님 앞에서 일어나 뻘뻘이 들어앉은 동수들을 해치고 아래로 내려가자? 게다가 내 자리가 제일 꼭대기잖아! 저렇게 비좁게 앉아 있는 동수들을 번거롭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제발, 스승님! 스승님이 12시 45분까지만 말씀하신다면, 15분 만에 언덕을 내려갈 수 있으니, 그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일찍 끝내지는 말아 주세요. 이런 드문 기회에 스승님 가까이 조금이라도 오래 앉아 있고 싶으니까요.’

나는 스승님이 언제 도착하셨는지도 몰랐다. 스승님은 우리와 함께 잠시 명상을 하신 것 같았는데, 그리고



선 우리를 깨워 말씀을 시작하셨다. 스승님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우셨다. 얼굴과 온몸에서 광채가 흐르고 투명해 보였다. 스승님은 얼마 동안 말씀하신 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 정확히 몇 시인가요?” 하고 물으셨다. 동수들은 시계를 보고선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12시 45분입니다!” “12시 45분이라구요? 좋아요, 그럼 해산하세요!” 세상에나! 나는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때 나는 감동과 부끄러움으로 어쩔 줄 몰랐다. 감동했던 것은 스승님이 이토록 중생의 요구에 응답하시며 제자들을 돌보신다는 것 때문이었고, 부끄러웠던 것은 호법 일로 스승님께 폐를 끼쳤기 때문이었다. 그 후로 나는 스승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진실로 이해하게 되었다. 스승님은 항상 우리 생각들을 접수하시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일, 고상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하며 항상 우리의 친구의를 청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

1992년 어느 날, 라이이 도장에서 스승님은 각 동수들에게 축복음식을 나눠 주셨다. 한 사람씩 스승님 앞에 가면, 스승님은 사탕을 한 움큼씩 집어 손에 놓아 주셨다. 차례가 되어 나도 스승님 앞에 서 있었는데, 스승님은 바구니 속을 이리저리 뒤지시더니 마침내 각기 맛이 다른 케이크 5조각을 주시면서 오랫동안 나를 보고 미소 지으셨다. 하지만 내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솟아 나왔다. 스승님은 내가 사탕보다 부드러운 케이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어렸을 때 사탕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 치아는 좋지 않은 상태였다.) 만물과 하나인 스승님의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것이다.

내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은 엄청난 장애와 시련 속에서 한없이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을 때였다. 나는 스승님 법상 앞에서 울면서 고통을 하소연했다. 그리고 선 명상을 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 스승님이 내 옆에 오시더니 나를 자애롭게 바라보신 후, 팔로 나를 감싸고 내 뺨에 당신의 뺨을 대시며 나와 함께 앞으로 걸어가셨다. 그 순간 축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느껴졌으며, 그 따스하고 친밀한 느낌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당시 스승님이 입었던 옷은 순백색이었는데, 천이 매우 좋고 아주 아름다운 무늬가 아로새겨 있었다. ‘옷이 참 아름답구나!’ 하고 생각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다. 하지만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꿈이 아닌 듯 했다! 다음 순간 나는 스승님이 내 베개 옆에 있던 사진 속에서와 똑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의 옷 역시 순백색에 우아했는데, 다른 점은 사진에서는 스승님이 재킷을 손에 들고 계셨는데, 꿈에서는 입고 계셨던 것뿐이었다. 머리 스타일도 위쪽에 머리핀을 꽂으신 귀부인 스타일로 똑같았다. 분명 화신 스승님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러 오신 것이었다.

스승님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전에 말씀하셨다. 우리가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당신은 우리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며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가 깨달은 스승이 될 때까지 영원히 돌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진실로 그러하다. 스승님을 따라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나는 내적으로 고양되었다. 이처럼 위대한 스승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가 스승님의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제자들이 열심히 수행해 큰 지혜와 깨달음, 해탈을 얻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비디오 테이프

<영어+중국어 자막>

664 인과의 법칙

미국 뉴욕 마리웃 호텔 단체명상
1999년 8월 4일

<영어+한국어 자막>

447 정직한 삶의 중요성

태국 방콕 단체명상
1994년 9월 18일

<영어>

711 인생이라는 호텔

미국 캘리포니아 프레스노
2001년 6월 21일

714 영리한 동물, 개

미국 플로리다 아쉬람
2001년 6월 6일

715 묵묵히 겸손하게 수행하라

한국 영동센터 국제선육
2000년 5월 15-16일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 Fax: (886) 2-87870873 / E-mail :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Ltd.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스승님의 최신 간행물의 목록과 간략한 내용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영어, 중국어)

감조법어 

칭하이 무상사/ 1997. 9. 13. 미국 캘리포니아 LA (원문 영어)

여러분 내면의 어린이의 품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부르면 나옵니다. 차츰차츰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것이 신의 순수한 품성입니다. 우리는 그다지 많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고 많은 것을 계산해서도 안 됩니다. 어린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결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7. 9. 13. 미국 캘리포니아 LA (원문 영어)

어린이같이 된다고 해서 책임감이 없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런 기대 없이 순수한 즐거움으로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신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아무런 걱정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90도로 비껴간 홍수태

류 유후이 사저/ 포모사 지롱

태평양에서 수일 동안 댐돌다가 예외적으로 경로를 바꾼 나리 호는 마침 조수가 만조되는 시점에 맞춰 2001년 9월 17일 마침내 엄청난 강수량을 동반하고 포모사를 공격해 왔다. 바다의 신 넵툼과 합작이라도 한 듯이 폭풍우는 바람과 비의 교향곡을 부르며 비극적인 홍수 사태를 연출했다.

전력과 물 공급이 며칠 동안이나 끊기고, 시즈와 덩네이, 치두 등 포모사의 다른 북부지역의 수위가 이례적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이 연달아 들렸다. 평상시 홍수대비 조치가 필요 없었던 지롱 시내와 타이베이 동구 등지도 침수되었다. 북부지역의 대형 홍수사태에 이어 중부지역 역시 피해를 입었다. 홍수태가 발생해 가옥이 무너지고 차량이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떠내려갔으며 엄청난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정말 가슴아픈 현실이었다.

태풍이 지나간 후 각 지역이 고생을 하는 동안, 나는 한 사저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저지대에 살고 있던 그녀는 저녁 명상을 하다가 문득 눈을 떠 문을 열었더니, 물이 그녀의 집에서 겨우 몇 인치 앞까지 오른 상태였다. 그녀는 즉시 가족들을 깨워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는데, 30년이 넘도록 한번도 침수된 적이 없었던 그들의 집은 몇 분만에 물 속에 잠기고 말았다. 재난 후 내가 그녀를 찾아갔을 때 집은 온통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구도 물에 흠뻑 젖어 있어 그야말로 엉망인 상태인 집을 그 사저는 어렵사리 청소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온 가족이 모두 무사하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해하는 사저는 미소 띤 얼굴로 그날 저녁 단체명상에 참석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장화를 신고 오토바이를 탄 채 가장 피해가 큰 덩네이로 향했다. 작년 태풍 상제인이 포모사를 강타했을 때에는 이 지역 저지대에 위치한 1층 건물들이 물에 잠겼었는데, 올해 나리 호는 2, 3층 높이까지 수위를 높였다.

나는 흙탕길을 달려 마침내 루 사형 집에 도착했다. 도착하기까지 길의 양옆에는 허리높이까지 어마어마한 진흙이 쌓이고 그 사이로 물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다. 원래는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가 작은 시내가 된 것이다. 이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건물들의 지하층은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 (이 날은 재해가 발생한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사람들이 각자 집을 청소하느라 바쁜 와중에 굴착기와 군인들이 복구작업을 돕고, 트럭들이



루 사형의 집 부근에 홍수태가 90도로 휘어져 나간 모습



루 사형의 집을 향해 곧장 내려오던 홍수태가 기근 물을 타고 방향을 바꾸었다

진흙을 실어 날랐다.

거기서 계속 운전을 해서 루 사형 집에 도착했는데, 루 사형의 집 바로 앞에 위치한 '럭키 플라자' 다층 아파트 단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과도한 개발로 간접적으로 산사태를 야기했던 것이다. 루 사형의 집은 예전에 우뚝 솟은 아름다운 두 개의 산봉우리와 마주 대하고 있었는데, 몇 달 전 땅 주인이 그 봉우리 앞에 얇은 철판으로 울타리를 치더니, 이어서 이웃 식품점 가게에서도 20피트 가량 되는 함석 컨테이너 가건물을 지었다. 루 사형은 당시 '저 사람들이 창고나 차고가 필요한가 보군' 하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수개월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비어있는 상태였다.

태풍 나리는 밤새 엄청나게 비를 쏟아 부었다. 바위와 다른 파편들이 섞인 흙탕물이 굉장한 속도로 루 사형의 집을 향해 돌진해왔다.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20피트 건물과 철판 율타리가 급류의 흐름을 90도로 꺾어주었던 것이다. 엄청난 빗물과 진흙, 모래,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사형의 집 옆길을 따라 떠내려갔다. 정말 경이로운 일이었다!

“스승님이 진작 이 모든 것을 안배

하신 겁니다.” 루 사형은 스승님의 은혜에 몹시 감사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문 앞에 남아있는 바위 몇 개와 뒤틀리고 파손된 아스팔트 도로를 찍은 후 앞 가건물로 가서 다양한 크기의 바위 사진도 찍었다. 또한 진흙사태의 경로도 기적의 증거로 기록해 두었다.

루 사형의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거실의 대형 법상에는 긴 녹색의상을 입은 스승님이 대자연의 어머니처럼 묵묵히 말씀하고 계셨다. “인생사가 무상하듯이 자연도 변화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루 사형의 집으로 오던 길에 보았던 광경들을 떠올리면서 그날 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생각하니, 마음 속에서 전율이 흘렀다!

스승님께서 일찍이 세 번이나 다녀가신 이 집에서는 스승님이 돌보시는 ‘평안’이 느껴졌다.



신의 독특한 교육방식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정리

인생에는 전환점들이 있다. 매번 고통과 시련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얻고’, ‘잃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 우리 마음에서 가름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포모사에서 보기 드문 태풍 유형인 나리 호가 최근 씨에 사형의 단란한 집을 ‘방문’한 후, 마음 깊은 곳의 안개가 걷히며 느낀 사형의 깨달음이기도 하다.

양명산 중턱 산비탈에 위치한 씨에 사형의 집은 산세를 따라 지어진 콘크리트 주택이다. 호우를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포모사로 접근 중이며 산간 지방은 산사태가 예기된다고 TV에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씨에 사형과 그 가족들은 지금껏 한번도 재해를 입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사롭게 넘겼다.

9월 16일 저녁, 평소처럼 집 뒤쪽 경사에 위치한 부엌에서 머리를 감은

사형은 머리를 말리고 명상하러 침실로 들어갔다. 그의 아버지도 일상적으로 안 마당과 뒤뜰의 배수로, 그리고 위쪽 부엌을 점검했다. 사형은 명상하는 동안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그때 갑자기 우리와 같은 소리가 집 뒤편에서 들려왔다. 뒤편 경사에 위치한 부엌이 갑작스럽게 쏟아진 흙탕물로 무너진 후, 맨 끝에 있던 콘크리트 건물에 떨어진 것이다. 맹렬한 흙탕물에 떠밀려온 온갖 크기의 바위들이 창을 깨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방문을 뚫고 거실로, 다시 안마당으로 휩쓸고 내려갔다. 씨에 사형의 집은 순식간에 산사태의 출구가 되어버렸다!

집안의 수심은 아직 낮았지만, 가속도가 붙은 물줄기는 계속 집을 향해 굽이치고 있었다. 산사태가 다시 터지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걸 깨달은 씨에 사형의 아버지는 온 가족에게 귀중품을 챙기라고 한 후 서둘러 산을 내려가 피신하기로 했다. 씨에 사형은 명상방식을 챙기고 나가면서 자신의 다다미 방 바닥에 놓인 스승님의 CD와 오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를 보고 정말 아까웠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즉시 떠나야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것들을 높은 곳에 옮겨 놓을 시간이 없었다. 거실의 수위가 10센티만 되어도 그의 소중한 소장품은 훼손될 상황이었다. 다급한 상황으로 그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서둘러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현명하게도 빗물과 돌들이 경사를 따라 흘러가도록 거실과 안마당의 대문을 열어놓았다.

사형과 가족들은 산길 산업도로를 걸어가면서 도로의 지반이 쏟아져 내려온 산사태로 무너지고 그 여파로 사방에 돌들이 즐비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날은 칠월처럼 어두워서 그들은 희미한 손전등에 의지한 채 어둠 속에서 바위에 치일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산을 내려가야 했다. 하지만 사형은 스승님께서 온 가족과 산 위에 있는 그들의 집까지 잘 돌봐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친분이 있는 이웃집을 발견했고, 그 이웃은 귀빈처럼 그들을 따듯이 맞아주었다. 이런 불행 속에서 그 이웃의 진심 어린 도움은 씨에 사형 가족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씨에 사형 부부는 바로 방을 빌려 명상하면서 홍수와 산사태의 위협에서 가족을 보호해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스승님에게 이제 더 이상 위협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다. 8, 9년 동안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 사형은 늘 스승님의 힘에 관해 확신해왔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잘 하면, 스승님은 분명 최상의 안배를 해 주신다.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기 기만 하면 된다.”

2시간 가량 명상한 후 이웃집 거실로 들어와 밖을 내다보니 비바람이 더 강해져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가 산 위의 집에 되돌라갔는데, 2시간이 지나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밖에서는 경찰 차가 계속해서 다니면서 “이 지역에 큰 산사태로 인해 바위와 흙의 급류가 발생했으니, 즉시 대피하십시오”라고 방송하고 있었다. 사형은 비록 아버지가 입문자는 아니지만, 스승님께서 똑같이 보살펴주시리라 믿었기에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괜찮으실 거라고 안심시켰다. 그가 막 아버지를 찾아 나가려던 순간,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의 아버지는 물과 암석 덩어리들이 잘 빠지도록 집 앞 배수로의 바위를 치우려 돌아갔던 것이었다.

70세의 노인이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겠는가? 그는 희미한 손전등만 갖고 심한 비바람 속을 뚫고 2시간에 걸쳐 어두운 밤에 돌과 흙의 급류를 건너고, 바위를 치웠다. 산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바위에 치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미 거센 흙탕물로 강이 되어버린 도로를 건넌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되돌아온 일은 씨에 사형에게 깨달은 스승의 보호력에 대한 믿음을 더욱 다지게 했다.

다음 날 물이 어느 정도 빠지자, 사형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안마당은 진흙으로 덮여 있었지만, 거실의 가구는 멀쩡했다. 진흙사태가 가구들을 휩쓸어가지 않은 것이다. 씨에 사형은 바로 침실로 달려갔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승님의 CD와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이 처음 모습 그대로 온전했으며, 그 방에는 물 한 방울도 없었고 이불도 젖지 않았다. 진흙사태도, 홍수도 그의 침실을 비껴 가서 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무사했던 것이다! 씨에 사형은 가족을 돌봐주시고 집을 지켜주신 스

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입문하지 않은 그의 부모들조차 스승님의 전지전능한 힘에 놀라워했다. 태풍이 물질적인 피해를 약간 입혔더라도 그건 표면적인 ‘손실’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이번 경험으로 온 가족으로 앞으로 함께 수행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물질로는 계산할 수 없는 ‘이익’일 테니까!

씨에 사형의 가족이 태풍 나리 호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동수들이 삽과 가래, 모래주머니, 음식을 가져와 집 뒷방에 무릎 높이까지 쌓인 진흙과 바위들을 치우는데 온힘을 다해 도왔다. 몇몇 사제들은 씨에 사형의 가족과 도우러 온 동수들을 위해 교대로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 왔다. 그래서 주방이 없어졌어도 모두들 따뜻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다. 씨에 사형은 그의 가족이 스승님의 은혜를 입었으며, 관음법문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디서도 이처럼 자신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많은 사형사제들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부모 역시 동수들의 형제애를 느끼고 이로 인해 관음법문에 대해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씨에 사형 또한 느낀 바가 많았다. 평상시 그는 센터에서 일이 있을 때면 늘 수동적이었지, 스스로 겸손하게 주도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태풍 재해 기간 동안, 그는 지역 동수들의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도움을 보며 ‘성심성의를 다해 사랑으로 돕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은 항상 말씀하셨다. “한 사람이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그 가족과 조상들 역시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씨

에 사형의 부역이 무너졌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단 몇 분이라도 지체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이 발생했을 것이다. 스승님이 이 70세의 아버

지도 여느 제자처럼 돌보셨기에 그는 산을 다시 올라가 배수로에서 바위를 치우고 또 다시 위험한 산길을 걸어 내려가는 동안에도 안전할 수 있었다. 씨에 사형은 “우리 온 가족은 이 일이 스승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노아의 방주



메이지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산시아

태풍 나리가 북부 포모사를 강타한 2001년 9월 17일, 집중호우가 50시간이나 계속되며 대지를 완전히 침수시켰다. 마치 성경 속의 노아의 방주를 떠올리게 하는 광경이었다. 하지만 이 현실세계에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있겠는가?

언론에서는 강들이 범람해 제방을 넘고 타이베이 광역시의 많은 지역이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피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구조팀의 도움을 받아 나오며 집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의 타이베이는 마치 개미굴처럼 사람과 차들이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형상이었다.

다행히도 나는 다소 지대가 높은 곳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폭우가 이를 밤낮으로 쉼 없이 내린 후에는 평소 우리 아파트 동을 받쳐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언덕이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큰 위험요소로 변해 버렸다. 새벽 한두 시쯤, 이장이 불시에 홍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확성기를 통해 발표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어두운 밤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밖으로 나와 헤

매야 했다. 우리는 2년 전 9. 21 지진 때 겪었던 불안과 공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휘몰아치는 바람과 무자비한 비, 그리고 지반이 약해진 흙과 바위들이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주눅들게 했다. 무자비한 폭우가 언제 홍사태를 야기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마침내 날이 밝았다. 비의 신도 조금 지친 모양인지 빗줄기가 약해졌다. 우리는 즉시 뒷산 언덕을 조사하러 갔다. 우리 아파트 전체에서 4군데 산사태가 발생해 차고 몇 군데가 무너지고 지하실에 물이 들어왔지만, 다행히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이웃 건물들은 전날 밤부터 사태가 심각했는데, 날이 밝았을 때는 거센 폭포가 5, 6층 높이의 비탈에서 곧바로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광경이 펼쳐졌다. 우리 동과는 담 하나 차이였는데, 우리 동 뒷산이 아직 나무들이 남아있는 반면, 이웃 동의 뒷산은 마치 껍데기가 벗겨지고 갈기갈기 찢어진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우리 뒷산 비탈의 나무들이 든든히 남아있게 도와주신 신께 감사드렸다.

꿈쩍했던 밤이 지나고 기상예보에서 태풍이 남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발표하자, 타이베이에 있던 나와 형제들은 고향인 포모사 중부 창화에 계신 어머니와 둘째 오빠에게 집 2층으로 물건들을 옮기고 재촉했다. 바닷가에서 성장한 고집 센 둘째 오빠는 지금의 폭풍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타이베이에 사는 우리 7형제와 조카들까지 계속 전화로 경고를 한데다 TV에서 보도된 타이베이 참상을 본 후에는 다소 조심스러워졌다.

우리 고향은 주변 동네보다 지대가 낮고, 추오수이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어귀에 있었다. 만약 부근 제방이 무너져 해수면이 상승하기라도 하면, 2층도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머니에게 충분한 식량을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한편, 오빠에게도 고무보트를 준비하고 특히 발이나 오리 우리 주변에는 가지도 말라고 부탁했다.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로서는 매일 TV나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며 태풍의 동향을 주시할 뿐이었다. 태풍이 타이쑹과 창화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자 우리는 고향이 재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TV에서 고향 인근 마을이 침수되는 것을 보고 스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태풍이 마침내 원린과 지아이를 향하게 되어 고향인 창화 지역이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내가 전화로 사정을 묻자, 어머니는 “괜찮다, 괜찮아. 물길이 우리 동네 입구에서 도로 때문에 막혔단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고 있어!” 하고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문득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 천고불변의 법칙이긴 하지만, 스승님은 입문 후에 수행에 정진하는 사람은 8대 조상까지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대중에게 봉사하면, 신은 우리에게 봉사합니다. 이것이 우

주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내 남동생은 스승님께 입문한 지 10년이 넘었으며, 평소 열심히 수행하고 대중을 위한 봉사에도 적극적이다. 나 역시 번역 일을 돕고 있다. 이런 일들은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번 일은 우리가 스승님의 도움을 절실히 요할 때면, 스승님께서 이처럼 크게 보상해 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스승님이야말로 진정한 노아의 방주이십니다.



불 끄는 부채

천 우메이 사저/ 포모사 미아오리



디자인: 청하이 무상사

예전에 어떤 사저는 어느 날 ‘불 끄는 부채’라는 만세등을 구해서 아들 방에 달았더니, 원래 불같은 성격이었던 아들이 신기하게도 온순하고 부드럽워졌다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다.

나 역시 스승님의 만세등에 관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있다. 한번은 가족들과 함께 낚고 오래된 집에서 살고 있었을 때 폭풍우를 동반한 태풍이 포모사 전역을 지나게 되었다. 아이들과 나는 두려움에 떨다가 나중에는 방에 만세등을 켜놓고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그 순간 만세등에서 사랑이 흘러나와 마치 두터운 보호막으로 우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우리는 밤새 단잠을 잘 수 있었다. 특히 겨울에 한랭 전선이 몰려올 때는 등을 켜놓기만 해도 집에는 따스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에는 정말 불가사의한 신성한 힘이 담겨있다!

왕 사형과 그의 여덟 살 난 딸은 1996년 8월에 입문했다. 입문 후 몇 년 동안 그는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평화롭고 즐거웠으며, 매순간 더 없이 행복했다. 지혜 역시 부지불식간에 커지는 것이 느껴졌으며, 예기치 못한 사건에 부딪혀도 마음은 늘 평온했다.

왕 사형이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딸 역시 학교에 가려던 중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집을 나섰다가 다시 돌아와 말했다. “아빠, 신경 좀 쓰세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도록요!” 왕 사형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지?” 하고 의아해하면서도 집 안팎을 의례적으로 점검했다. 그가 부엌에 들어갔을 때 LPG 가스 난로의 가스관에서 칙칙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살펴보니 가스관에 틈이 생겨 그곳에서 가스가 계속 새어나오는 중이었다. 그는 크게 놀라며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생각했다! 그가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부엌에 가스가 가득 찼을 것이고, 그때 불을 붙이거나 전자제품을 켜면 폭발했을 것이다. 그건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피해를 입혀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 날 왜 그렇게 말했니?” 나중에 왕 사형은 딸에게 묻자,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 집에 불이 나는 꿈을 여러 번 꾸었지만, 그것도 내면의 체험이라서 감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 때, 왕 사형의 아파트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하

매순간 위험을 막아주시는 스승님

중국 본토 왕 사형 구술
관음사자 기록

루는 딸 혼자 집에 있는데,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아이는 이웃일 것이라고 생각하곤 문을 열어 내다보았는데, 아파트 이웃집에서 낯선 사람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보고 바로 왕 사형의 집에 침입했다. 도둑은 손에 칼을 들고 아이에게 물었다. “돈은 어디에 있지?” 아이는 “몰라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도둑은 벽을 향해 있으라고 명령하고는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 어린 사저는 아주 침착했고 대들지도 않았다. 심지어 속으로 ‘마음대로 가져가세요!’ 라고 생각했다.

도둑은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으나 금목걸이 두 줄 밖에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찾지 못했다. 그가 떠날 때 어린 사저는 “아버씨, 잘 가요!” 하고 인사했다. 도둑이 가버리자 아이는 왕 사형의 일터로 달려가 일어난 사건을 매우 유머스럽게 보고했다. “아빠, 낯선 손님이 방금 찾아와서 아파트를 전부 뒤집어 놓았어요!” 왕 사형은 이 말을 듣고 바로 집으로 달려가 주의깊게 살폈는데, 스승님의 책자들과 그 밑에 놓여둔 그가 아끼는 귀중품이 무사한 것을 보고는 크게 안심했다.

후에 그 도둑이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잡혔는데, 경찰 심문에서 왕 사형 집을 털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이 그에게 어떻게 아이를 해치지 않았는지 묻자, 그는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건 돈뿐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애는 나를 아저씨라고 불렀는 걸요!”

왕 사형은 스승님께서 여러 차례 그와 가족들을 위험에서 구해 주신 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님의 주도면밀한 가호와 관심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역사를 스승으로 삼으라



청하이 무상사/ 1996. 3. 14.
미국 로스앤젤레스 (원문 영어)



지혜의 보물을 깨닫자

우리는 수행의 힘으로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들 그것을 알고 있지요. 수행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떤 라마승들은 날씨를 바꾸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만 하면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변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사람이 생긴 이래 내가 자주 방문해서인지 동수가 가장 많은 곳이 되었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멋진 일이지요! (대중 박수) 이진 정말 좋은 일입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곳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장담하건대,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어떤 스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천안이 열린 한 제자는 이미 천안으로 스승의 여정을 보았기 때문에 스승이 가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스승이 머물렀던 지방의 제자와 함께 확인해 본 후 스승이 가는 곳마다 비

가 내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인도처럼 아주 건조해서 비가 부족한 곳이었는데도 이 스승이 가는 곳마다 비가 왔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예요. 마치 스승이 비를 불러 가는 길을 적시는 듯 했지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현상을 ‘본’ 제자가 그곳 동수들에게 확인했더니 그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말 관음법문은 환상적입니다. 이 최고의 법문이 주는 이로움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온 세상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를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인내심이 없다면 이 일을 참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법문과 전능한 최상의 힘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들 내면에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매일 신에게 겨우 작은 복이나 구합니다.

때로 나는 여러분 같은 제자들에게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이렇게 멋진 법문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뭐라고요, 2시간 반

이라고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신의 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인내심이 없다고 여겼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인내심이 없다면 정말 그런 걸 참지 못했을 겁니다. 진정한 인내심이란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야단치지 않아야만 인내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참을성은 대단합니다. 비입문자가 볼 일이 있어 내 집에 와서 여러분이 하는 식으로 행동했다면, 나는 그를 야단치거나 나가라고 하지도, 그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할 일을 알려 줄 뿐입니다. 그가 계속 서 있으면 “앉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앉기를 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가 돌봐야 하는 입장이므로 나는 여러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고치는데 서둘러야 하지요. 마치 여러분이 자녀와 그 애들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사소한 실수도 용납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웃의 아이라면 아무리 엉망이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행동이나 그 교육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이라면 다릅니다. 꾸짖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대하며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하지만 이웃에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든, 내가 기분이 좋거나 나쁘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건 모두 여러분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뿐입니다.

문명의 정점과 전쟁의 주기

여러분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멋진 일에 대해 얘기해 주겠습니다. 지금처럼은 아니었지만 고대에도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문명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구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우리의 고대 문명은 은하 전쟁, 행성간의 전쟁, 내전과 같은 어떤 전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쟁은 문명이 최

정점에 도달했을 때 생깁니다. 그때 그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의 힘을 조정해 자아를 통제하거나 그 과학적 지식을 보다 지혜롭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한쪽이 새로운 발견을 장악하기 위해 다른 쪽과 경쟁을 해서 다른 인종이나 대륙, 행성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데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모든 것이 끝장이 나지요.

인류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우려 하지 않아요. 우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이 교훈을 배우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 경제가 파산되고 오랫동안 궁핍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고, 각국 지도자들도 모두 알고 있는데도 온갖 구실을 대며 평화보다는 전쟁을 택합니다. 때로는 위협하기 위해 그러기도 하지만 그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쪽이 서로 오해하게 되어 사소한 일이 큰일로 번지게 되고 결국에는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전쟁이 발발해 또 다시 우리 문명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최근 대서양 발굴을 통해 알려진 고대 아틀란티스 문명이나, 고대 외계의 문명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그 시절에 어떻게 그처럼 문명화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분명 어느 시기엔가 존재했으며,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 더 문명화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아마 인체를 ‘화학적’시키는 원자폭탄처럼 고도로 발전된 화학무기의 일종에 의한 영향이었을 겁니다. 사람을 불태워 재로 만든 것이 당시로서는 소금처럼 보였겠지요.

그러므로 이전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물론 수많은 발견과 발명도 있었으며,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우수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오만해 할 것도 없으며, 또 이런 유한하고 일시적인 기술 장비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지요. 뭔가를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또 모든 것을 파괴시켜 A, B, C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에 대한 사례가 될 만한 얘기를 한 가지 읽어주겠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인은 많은 현대적 기구들

을 최초로 발견한 민족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다소 미숙하고 초보적인 형태였겠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발전되었고 또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이 이런 지식을 갖고 진일보된 모습으로 발달시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중국 사람들은 폭죽을 발명했는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을 즐겁게 하거나 귀신을 쫓기 위해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또는 결혼같이 기쁜 일을 떠들썩하게 축하하기 위해 사용했지요. 그런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중국인은 아무 때나 폭죽을 터뜨리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대중 웃음) 누가 죽어도 폭죽을 터뜨리고 결혼을 해도 터뜨리고 우울할 때, 행복할 때도 폭죽을 터뜨립니다. 생일에도 터뜨리고 칭하이 데이를 경축할 때도 터뜨립니다. (대중 박수) 내 생일이나 칭하이 데이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온갖 시끄러운 소리로 우리 귀를 괴롭히지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북을 두드리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요란스러운데 나도 이젠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런 폭죽은 수천 년 전 중국인에 의해 발명되어 즐거움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방문했던 유럽인들은 이후 그것을 살상하는데 사용했고, 거기서 총이 발명되었습니다. 최초의 총은 중국인에게 사용되었던 셈입니다. 중국에는 그 이전까지 총이 없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중국인에게서 최초로 폭죽의 원료인 화약을 발견한 후 그것을 사들인 후 화약과 대포를 발전시켜 중국에 되팔았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대포나 화약을 가졌던 최초의 왕은 중국 최대의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발명할 당시 아무 해도 없는 어린이용 장난감이 다른 사람에게는 살상용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또한 다른 많은 것들처럼 중국인에 의하여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럽인은 중국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 너무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은 나라가 존재했으니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이 그렇듯이 야수를 매혹시킨 미녀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름다움과 재능, 재산, 모든 것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슬픔과 불행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돈 같은 것에 연

연하지 말고 단순하고 궁핍하게 살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활이 그리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라면요. 여기서는 히말라야에서처럼 맨발로 걸어다닐 수 없습니다. 수퍼마켓에 가려고 해도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최소한 3시간은 걸리므로 여러분은 굶어 죽을 겁니다!



왕에게 선물한 로봇

중국 주 나라에 무왕이 있었는데 그는 2,500년 전 전국시대의 왕이었습니다. 대부분 왕들은 파분하고 할 일도 없어서 사냥을 하러가곤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에 그들은 항상 전술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일이었지요. 그래서 중국 역사를 보면 서로간에 혹은 이웃국가들끼리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동물들과 전쟁을 벌였지요.

이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으로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는 연산이라는 산이 있었지요. 사냥을 마친 후 그가 왕궁으로 돌아가던 길에 어떤 사람이 공물을 바쳤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공물이 아니라 매우 숨겨 좋은 장인을 바치는 인신 공물이었습니다. 장인의 이름은 엔스였습니다. 무왕은 장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의 재주는 무엇이나?” “폐하, 무엇이든 만들라고 하시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발명한 기계도 있으니 원하신다면 그것을 한번 보이고 싶습니다.” 왕에게 선물로 바쳐진 장인인 엔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허락했습니다. “물론 되고 말고, 내일 여기로 가져와 보아라. 어디 한번 보자.” 다음 날 엔스는 그 기계를 왕에게 가져왔습니다. 왕은 매우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뒤에 따라오는 자가 누구냐?” “제가 발명한 기계입니다.” 보십시오. 그 기계는 너무 나

정교해서 왕은 엔스를 따라오는 사람이라고 깜박 속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로봇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말이에요. (대중 웃음) 아직은 그 정도까진 아니지요! ‘미지와 조우’와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주방의 후버 진공 청소기처럼 생겼지, 우리가 속을 만치 인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천 5백 년 전의 이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사람’과 같은 것을 발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른 행성에는 이런 발명품이 있고 매우 보편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들은 얘기이므로 책임질 순 없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인간을 닮아서 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계속 이 ‘사람’이 걷고, 달리고, 왕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주시했습니다. 로봇은 우리가 왕이나 높은 사람을 알현할 때처럼 예를 올렸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해서 완전히 인간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장인, 즉 발명가인 그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과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가 로봇 턱의 한 부위를 건드리자 로봇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확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또 장인이 로봇의 손을 올리자 뛰어난 무용수처럼 매우 정교하고 복잡한 춤사위로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로봇은 갖가지 예능 공연을 매우 능숙하고 숨씨 있게, 그리고 훈련받은 사람처럼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그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으며, 왕은 그 정교함과 숨씨에 깜짝 놀라 그것이 진짜 인간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왕이 총애하는 왕비도 같이 보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궁녀들도 로봇을 빙 둘러싸고 신기한 듯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은 모든 공연을 마치자 심지어 윙크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대중 웃음) 마치 왕비에게 추파를 던지듯이 윙크를 했지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로봇은 너무 진짜 같았기 때문에 왕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마치 속셈을 갖고 아름다운 여자에게 윙크하는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왕은 분노와 질투심으로 폭발할 지경이 되어 로봇 뿐 아니라 그것을 발명한 엔스까지 모두 죽이려 했습니다. 그는 그들 둘이 모두 살아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겁니다.

왕의 눈에 너무나 ‘실물’ 같았던 발명품

발명가인 엔스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오, 부디 진노를 푸소서! 이것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그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가 나사를 풀어내니까 로봇은 그 자리에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엔스는 천천히 팔과 다리, 위장, 귀 등 모든 것을 들어내며, 그 내부가 기계로 되어 있으며 진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왕에게 보였습니다. 그때 왕은 심장과 간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나무나 금속에 색을 입힌 것이 분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기계장치에 불과했지요. 하지만 그건 너무나 사람과 똑같아서 로봇의 피부 아래에는 인간의 혈액순환계처럼 동맥과 정맥들도 있었습니다.

엔스가 치아와 귀, 눈 등 모든 것을 떼어내 왕에게 확인을 시켜주자 왕은 그제야 믿었습니다. 왕이 로봇의 심장을 떼어내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자, 로봇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발명가에게 로봇의 간을 떼어내라고 지시하자 더 이상 윙크를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었지요. 그제서야 왕은 비로소 그것이 로봇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노여움을 풀고 그 둘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 자가 어찌 신의 자리를 대신하려는가? 어떻게 창조주의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와 경쟁을 하겠다는 건가?’ 하고 생각하며 놀라움과 충격으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장인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발명가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을 겁니다. 왕은 신하에게 수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 로봇과 발명가를 태워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발명품 중 정말 '새로운' 발명이 있는가

고대 중국인은 또 구름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계도 발명했습니다. 구름 위를 올라갈 때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구름 승강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비행기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기계가 있었다니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지요.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만든 사람도 다른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기계 새'라는 것도 발명했는데, 그것 역시 비행기의 일종이었을 겁니다. 두 발명가는 그들의 발명품이 최고 수준이라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발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시 그 로봇은 이전의 기계 새나 구름 승강기보다 훨씬 뛰어난 발명품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대 중국인들은 UFO나 비행기 같은 것이 있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럴 겁니다. 로봇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기계 새와 구름 승강기를 만든 두 사람은 이 '인간'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앞에서 감히 자신들의 발명품을 자랑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걸 보면 이 일은 같은 전국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중국의 전국시대 동안 일어난 매우 기이하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매우 특이한 존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E.T라고 부르는 존재와 아주 비슷했지요.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외계인이 사용한다고 추측하는 레이저 총과 유사한 무기로 사람들을 그 자리서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거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모두 신통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중에 온갖 환상을 만들어내 속수무책인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 시대에 이미 별들의 전쟁(스타워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스타워즈는 전혀 허구가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 그 중 일부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3천 년 전 중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아무런 연관도

없었는데, 것처럼 멀리 떨어진 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일에 대해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에는 일반적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서술에 따르면, 총이나 레이저 총처럼 지극히 정교하게 발달된 고도의 살상용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높은 곳, 하늘에서 온 높은 신선으로 칭했습니다. '봉신방'에 나오는 신선처럼 여겼지요. 어쨌든 그건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중국 역사에도 서술되어 있으니 허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3천 년 전 인간은 현대적인 기구들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훨씬 발달된 것이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를 읽었는데, 3천 년 전에 이미 원자폭탄이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가 땅속에 묻힌 유적을 발굴했는데, 그것은 원자폭탄으로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던 방사능 흔적을 시험해 본 결과 원자폭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룿의 아내 얘기와 3천 년 전의 원자폭탄은 같은 시대에 생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성은 일찍이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다른 정부체제로 인해 우리 자신, 혹은 다른 행성과의 전쟁으로 파괴된 적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우리는 현재 알고 있거나 갖게 된 물질적 발명품에 대해 조금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우리보다 훨씬 정교하고 발달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 사용했지요? 서로를 죽이고 파괴하는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한 순간의 실수나 전쟁을 피할 방법이 없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 보십시오, 아무것도 좋을 게 없잖아요. 살인 방법이나 무기의 발명은 결코 인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배우지 않고 이 순간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각국 정부 수뇌들도 '전국책(戰國策)'이나 '봉신방', '삼국지'를 읽고 거기서 뭔가를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중국인이군! 그들은 정말 상상력도 풍부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속에 어떤 진실이 담겨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읽

은 ‘전국책’에는 현재와 매우 유사한 신기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그 책에는 매우 탁월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신통으로 상대방을 전멸시키곤 했습니다. 소식을 얻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명상하거나 자기 집, 동굴 속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그 옆으로 이상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는 우선 바람이 지나가도록 한 후 그 바람을 잡아 무슨 소식인지 듣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이야기를 읽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읽어 본 적이 없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괜찮은 책인데, 중국 6대 기서 가운데 하나지요. 나는 어렸을 때 읽었습니다. 겨우 예닐곱 살 나이로 그 책에 흠뻑 빠져 밤낮으로 읽자 아버지는 그 신기한 세계에서 나를 쫓아내곤 했습니다. (대중 웃음) 하지만 나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어딘가에 숨겨나 아버지가 나가길 기다렸다가 계속 읽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었거든요. 나는 그 책이 유명한 중국 고전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좋아서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중국 고전을 거의 다 읽었는데, 지금도 모두 생각이 납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중국 고전은 아주 어렸을 때 독파했고, 그래서 7살에는 중국의 모든 왕조를 끝내고, 그 모두를 평정했습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박수)

보세요.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입에서 늘 회자되는 말이지만 누구도 그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은 아직도 전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다시금 피의 역사를 재연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깨어나길 기원하다



나는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깨어나 진리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는 서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합니다. 모두들 평화를 말하고 각국 정부들은 목청껏 부르짖지요.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과 번영, 자유, 평등, 박애, 이 모든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그들이 자국민에게 하는 모습이 어떠한지. 우스운 일이지요. 나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저녁에 잘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하얀 거짓말, 검은 거짓말에 대해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광신적이어서 자신의 실수를 보지 못하는가 봅니다. 또는 천성적으로 그런 자질을 갖고 태어나 아주 자연스러운지도 모르지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새가 하늘을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살인자나 나쁜 사람, 부정적인 사람, 혹은 대규모 학살의 주모자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곳에서 사람을 죽이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들은 전쟁 중에 수천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과 어린이에게 총을 겨눕니다. 그래도 어느 누구 하나 그들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정말 안됐군요!” 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전쟁의 부산물인 이산가족과 재산 손실에 대해서도, 그리고 청춘, 지성, 인간적인 삶 등 이 귀중한 것들이 피해를 입어도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유감이군요!”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사람들이 일본에게 2차 대전에 대해 공개 ‘사죄’하라고 압력을 가해도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누가 신경을 쓴단 말입니까? 그들이 정말 신경 쓴다면, 세계의 난민들을 보다 많이 돌봐야 합니다. 무자비하게 온갖 수단으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들이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모든 전쟁을 끝내고 다시는 시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왜 지도자들 대부분은 전쟁을 시작할까요? 그건 그들이 전쟁으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든, 국가 재산이 얼마나 손실을 입든 그들은 괜찮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여전히 먹을 게 풍족하고 호화롭게 살며, 리무진과 전용 비행기, 경호원을 거느리고 최후의 순간까지 누



립니다. 나라가 망해도 전용 비행기에 국가의 온갖 재산들을 싣고 ‘안녕!’ 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리고는 어딘가에서 왕처럼 살아가지요. 다만 왕국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자들은 전쟁이든 평화든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의 부와 권력을 축재하고 독재를 행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고를 때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대에 꼭 맞는 완벽한 인물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최선의 사람, 최소한의 피해를 줄 사람이어야 하지요. 적어도 좋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제발 나쁜 짓만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를 죽이지만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대통령, 혹은 왕이 생긴다면 정말 우리에게 이로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그나마 바꿀 수 있지만, 왕이라면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해요! 여러분이 혁명을 일으키면 첫번째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다행히도 현대에는 그런 독재적인 왕들이 많진 않습니다.

예전에 왕은 바로 신이었습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었지요. 그랬다간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이미 머리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감히 말은 고사하고 왕을 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왕이 행차하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땅바닥에 두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었다간 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머리가 다른 데에 가 있을 겁니다. (대중 웃음) 어디서나 이처럼 엄격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거나 불편과 추위, 더위, 질병으로 고생하던 왕은 항상 풍요롭게 잘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비빈들과 환관들도 아무 문제없이 잘 지냈지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이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사랑의 교훈

마리 앙트와네트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를 알지요? 그녀는 입에 금 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빵이 없어 고생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것이 굶주림을 뜻하는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요!” (대중 웃음) 빵이 없는데 케이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런 사정을 몰랐습니다. 평민들에게는 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뜻하며, 빵은 끼니이자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마치 “밥이 없어!”라는 중국인의 말이 먹을 게 없어 배고프다는 뜻인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인이나 유럽인에게 있어 빵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마리 앙트와네트 같은 왕비는 배고픔과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걸거나 바깥 백성들의 일상 생활을 본 적도 없었겠지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피하거나 감춰졌고, 그녀는 호위병들의 보호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백성들의 삶도 결코 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는 마음이 차가운 왕비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거짓과 불필요한 사치, 엄청난 보호 속에 둘러 쌓여있었지요. 그러니 당시에 왕과 왕비에 대해 반란이 일어나고 그들을 단두대로 보낸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건 독재와 전제정치를 개혁해 백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자유

옛날에는 왕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해도 간언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할 순 없지만, 어떤 대통령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지요. 적어도 예전보다는 많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것이 조금 달라진

점이지요. 전에는 왕이나 정부에 거슬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으며 여러분은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나 대통령에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시킨 일은 해야 합니다. (대중 웃음) 그러니 ‘언론의 자유’ 정도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을 밖으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아, 나는 자유롭다! 적어도 말을 할 수 있으니!” 하고 느낍니다. 말로 표현하면 기분도 달라지므로, 일을 해야 해도 자신들이 그렇게 억압받는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 역시 문제지요.

내가 러시아 사람에 관한 농담을 얘기했었나요? 한 미국인이 러시아로 관광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비밀 경찰들을 보았는데, 그곳 사람들은 모두 겁을 먹은 채 웃지도 않았습니다.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이게 도대체 뭐가? 자네 나라 사람들은 감히 아무 말도 못하잖나. 미국에서는 아무 때나 대통령이든 정부든 비판할 수 있다구. 우리는 언제고 무슨 일에 대해서든 비판할 자유가 있어.” 그러자 러시아인 친구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역시 미국 정부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언제든지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대중 박수)




미래의 희망은 우리 손에 있다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락에 착륙한 UFO에 대해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4천 년 전 있었던 이야기로 그 사람은 당시 어울락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외계인으로 체구가 매우 작았는데, 자신의 몸을 강하고 크게 만들고는 불을 뿜는 말에 올라타 하

늘을 날았습니다. 그 말이 땅에 닿을 때마다 땅이 둥글게 움푹 패이곤 했는데, 무슨 말이 그랬겠습니까? 그건 마치 축구를 하는 식이었고, 혹은 이렇게 둥근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쨌든 말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것은 양옆으로 불을 뿜는 철마였는데 불을 뿜는 곳마다 적들을 전멸시켜 모두 죽였습니다. 그 무엇도 그 말과 말에서 나오는 불 뿜는 무기에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아마 현대의 화염 총이나 일종의 UFO같은 최첨단 장비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매우 문명화되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했으며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역사를 계속 정독하면서 보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의기소침해질 것이 아니라 더욱 큰 희망을 가져야 하지요. 고대 인류가 것처럼 고도의 문명을 가졌다면, 우리도 미래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훈련해 윤리와 도덕 기준, 고귀한 이상, 사랑, 자비심을 견고히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령 위험한 기계를 발명하더라도 그것으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인류에 봉사하고 문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평화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이 점을 깨닫길 희망합니다.

강조법어 

청하이 무상사/ 1993. 3. 9. 싱가포르 (원문 영어)



우리는 과거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를 잘 돌보면,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아프간 난민의 고통에도 스승님의 사랑이 미치다

수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이 나라는 수년에 걸친 전쟁과 심각한 가뭄으로 위기가 지속되었는데, 올 겨울이 시작되면 그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어린이들은 기아와 질병, 추운 날씨 등으로 쉽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곳 사람들은 보다 문명화된 이웃 나라에서 보금자리를 찾고자 각지를 떠다니지만, 정착 후에도 빈곤하고 고통스런 삶과 직면해야 한다. 자선단체들이 수년 동안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음에도 아프간 난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 및 식량, 교육 등을 지원하기에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최근 발생한 전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터전마저 잃고 낯선 곳으로 유입되어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구원의 손길을 찾고자 소망하고 있다.

이러한 그들의 절박한 외침에 청하이 무상사는 즉시 아프가니스탄 접경 국가의 난민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펼치는 유엔 어린이 재단(UNICEF)과 국제 적십자 연맹에 각각 5만 불을 기부하였다.

2001년 10월 22일,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대표자가 뉴욕 세컨드 에버뉴 국제 적십자 연맹지부에 아프간 난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만 달러의 수표를 전달했다. 적십자 연맹 직원은 매우 감사히 수표를 접수했다.

2001년 10월 25일에는 다시 유니세프에 5만 달러를 전달하였다. 유



유엔의 국제 적십자연맹 참관위원이자 위원단장인 엔초 고스포디노브 씨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5만 달러를 수령하다

니세프는 아프가니스탄 주변국에 체류중인 난민들에 대한 긴급구조 외에 아프가니스탄 자국에도 가능한 많은 구조물품을 보내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수백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들에게 가능한 모든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일시적인 기부금으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대중들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세상 곳곳 사람들이 모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이 세상에는 자선과 온정, 나눔의 생활방식이 형성될 것이며, 그런 면에서 개개의 작은 자선활동들은 동일체적인 전체의식 고양에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

unicef Genev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P.O. Box 2500, 1211 Geneva 25, Switzerland
Phone: (41) 22 719 72 21
Fax: (41) 22 719 72 21
Web site: www.unicef.org

November 5, 2001
Ref: GENE/0117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gratefully acknowledges receipt of:

**US\$ 50,000,
FIFTY THOUSAND DOLLARS**

Value: October 25, 2001

representing a donation for the children of Afghanistan.

On behalf of the Administration of UNICEF, may I thank you most sincerely for your contribution.

[Signature]
Administration & Finance Officer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c/o Madame Utsa Kain
Chemin de Savoy
1271 GIVRINS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OFFICIAL UNICEF RECEIPT

DEPOSITED IN BANK: **US\$ SA A/C** DATE: **25.10.01**

Received from: **Supreme Master Ching-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Address: **c/o Utsa Kain, Chemin de Savoy 1271 GIVRINS**
Amount (in words): **Five thousand dollars**
In payment of: **Donation in favour of Children of Afghanistan**

Amount On Payment: **US\$ 50,000,-**

CREDIT THIS RECEIPT TO:
☐ Advances Locally Recoverable (Repayment)
☐ NO
☐ R/C/D
☐ Other

[Signature]
For UNICEF

아프가니스탄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전달한 5만 달러에 대한 유니세프의 영수증

THE PERMANENT OBSERVER OFFICE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AT THE UNITED NATIONS, NEW YORK

100, New York Avenue
New York, NY 10017
Tel: (212) 338-6000
Fax: (212) 338-6001
E-mail: info@icrc.org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Mediation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110 Chungking Avenue
Brooklyn, NY 11238

New York, 21 October 2001

Dear Association members,

On behalf of our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y, please accept my appreciation for your organization's generous USD 50,000 contribution in support of the Afghan refugees. As you know, our Red Cross teams of experts and volunteers work around the clock according to the thousands of refugees affected by the current crisis. As we continue to expand our help and relief programs to effectively assist these families and communities, it is the generosity of people like you that our service delivery is made possible.

The Federation and its member National Societies and volunteers recognize that the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hat global communities are facing call for the greatest and longest-lasting efforts to work in unison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responses. Please be informed that our teams are dedicated to working with you and will continue to exercise the effective and sustainable relief initiatives we are committed to.

Again, thank you for your kindness and generosity. If I may provide any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e relief operations or other global emergenc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rogrammes,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t 90 (212) 338-6001.

Sincerely,
[Signature]
Fengxue Anshu
Administration Officer

This letter serves as your receipt. Please know that in accordance with UN regulations, this donation has not been used for profit or for any goods and services unrelated to the specified relief operations.
Please be advised that this letter is a replacement of the one which was addressed to Mr. Zuhair Ding on 21 October 2001.

FEDE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E LA CROIX-ROUGE ET DU CROISSANT ROUG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FEDERATION INTERNACIONAL DE SOCIEDADES DE LA CRUZ ROJA Y DE LA MEDEJA LUNA ROJA
الاتحاد الدولي لجمعية الصليب الأحمر والهلال الأحمر

뉴욕 유엔 국제 적십자연맹의 감사 서한

20분 저작의 의미

맥스웰 D. 듀브 사형/ 남아공 (원문 영어)

진리에 대한 의문

몇 년 전, 나는 영적인 면에서 진실한 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교회에 갔지만, 교회에는 그 '무언가'가 없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그 후로는 수행단체에 가입해 종교 서적과 철학 서적들을 읽었다. 나는 선, 수피교, 불교, 그리고 과학과 종교간의 충돌에 대해 깊이 탐구했지만, 그 어느 것도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직 침대에 누워있다가 유채이탈을 체험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것은 그 동안 책에서 찾지 못했던 그 무엇이 진정 존재하며 내게 발견되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칭하이 스승님과 만남

얼마 후, 나는 남아공의 한 대형 슈퍼마켓에 들렀다가 스승님의 사진이 실린 팜플렛을 보았는데, 히말라야에서 온 스승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사진 속의 인물이 스승님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단지 히말라야에서 온 나이 들고 수염이 긴 '구루'를 소개하는 여성일 것이라고 여겼다. 어쨌든 나는 전화번호와 팜플렛의 몇 가지 정보를 적어두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우연히 노트에서 그 전화번호를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 쪽에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곳을 알려 줬는데, 집에서 먼 곳이었고 내게는 그런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그 '구루'가 멀리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항상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니, 언젠든 새로 약속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다.

스승님과 두 번째 만남

그렇게 8개월이 지나는 동안 나는 그쪽 사람들과 다시 연락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어느 주말 아침, 동네의 작은 상점에 가던 중에 신문 전면면에 타블로이드 크기로 실린 왕실 복장을 한 여인의 사진을 보았다. 광고에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1999년 11월 25일 남아공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 강연에 가기로 스스로 약속했다.

강연회 당일, 강연장인 시청으로 들어가는데, 한 사저가 견본책을 주며 환영해 주었다. 나는 즉시 견본책 표지의 스승님을 알아보았다. "아, 이분이 오늘 오시는 그 스승님이 십니까?" 하고 내가 묻자 그 사저는 그렇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너무나 놀라서 책자의 사진을 계속 응시했다. 그리고선 지난 호 잡지들을 놓아둔 탁자에 가서 각 호별로 잡지를 모았다. 하지만 그 날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스승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을 듣느라 읽을 틈이 없었다. 나는 예전에 일러준 주소로 찾아갔더라면 스승님에 대해 좀더 알 수 있었을 텐데 하며 후회했다.

강연회장은 사람들로 꽉 찼으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스승님을 보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분의 손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손을 뻗는 바람에 길이 막히기도 했다. 나 또한 소원대로 스승님과 악수를 했다.

첫 번째 입문식을 농치다

강연을 듣고 나서 나는 몹시 입문하고 싶었지만, 채식이란 문제가 앞을 막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엔 스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법을 수행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1주일이 지날 무렵 갖고 온 뉴스잡지와 견본책을 거의 다 읽고 난 후, 내가 겪었던 이 우연찮은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스승님의 가르침과 뉴스잡지에 실린 다른 동수들의 체험을 예전에 읽었던 책들과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하루에 30분간 명상했는데 내게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2000년 1월 1일 새 천년이 오던 새벽을 기점으로 나는 완전 채식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들은 다들 놀라워했다! 열망이 실현되자 나는 스승님이 요하네스버그에 오셨을 때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다행히 이제부터 3개월만 기다리면 관음사자가 와서 입문을 시켜줄 것이었다. 기다리는 동안 매일 30분간 방편 명상하는 것으로는 너무 짧아 답답할 정도였지만,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나갔다.

또 다시 농친 입문 기회

마침내 관음사자가 우리 지역에 온다는 소식을 접했다. 내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상상이 갈 것이다! 이제 내가 찾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관음사자가 오기 3일 전, 입문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화요일 센터에서 아침 9시에 입문식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 줬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어떤 사형을 만났는데, 그는 입문신청서를 작성한 후 8시까지 도착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알았다고만 했다. 월요일 오후 나는 스승님 사진을 처음 보았던 예의 그 슈퍼마켓에 갔다가 그 사형을 또 만났다. 그는 인사를 나눈 후 재차 강조했다. “잊지 마세요. 입문하려면 내일 아침 8시까지지는 도착해야 합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9시가 아닌 8시를 강조하는지 생각지도 않은 채 “알았어요” 하고 대답하며 속으로는 입문식 전에 비디오를 보여 주려고 그러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화요일, 그 사형이 말한 8시가 문득 생각났지만 뭔가 잘못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기분이 들떠 지각인줄은 꿈에도 몰랐다. 8시 15분 경 집에서 출발해 8시 35분쯤 센터에 도착했는데, 그때서야 내가 20분이나 지각한 것을 알았다! 지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얼마간 시간을 안배했는데도, 나는 그 시간마저 넘긴 것이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내게 계속 시간을 상기시켰던 그 사형이 마침 호법이었는데, 그가 내게 지각이라고 했을 때 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들여보내 달라고 사정했지만, 그건 그의 직권을 벗어난 일이었다. 그는 안에 들어가 아직 기회가 있는지 알아보고 돌아와선 미안하다고 말했다. 나는 신에게서 쫓겨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통곡하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너무 기가 막혀 이 일이 믿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 사형도 나이 때문에 입문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리는 그의 차에 앉아 서로의 사연을 얘기했다. 그 역시 채식 때문에 첫번째 입문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은 나이 때문에 못하게 된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 내겐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그날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내가 또 다시 신의 부름과 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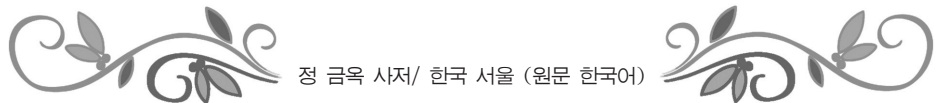
를 놓쳤다고만 생각했다. 마침내 나는 그로부터 거의 일년이 되던 2000년 12월 19일 입문했다. 정말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힘과 용기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뒤돌아보며

지난 일을 반추해 보니, 처음부터 내게 이 모든 상징적인 일들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나는 내가 이런 징표들을 보지 못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본다. 그 기회는 너무나 미묘한 것이어서 스승님의 완벽한 안배를 되새기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스승님께서 남아공에 오셨을 때, 나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리석은 두뇌가 다른 일정을 진행하는 바람에 놓쳤던 것이다. 내가 입문 기회를 놓친 것으로 통곡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때였다. 두 번째는 스승님이 내가 시간을 혼동할 것을 미리 아시고 센터의 사형을 통해 두 번이나 일깨워 주셨지만, 나는 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사형사자 여러분,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입문을 위해 1년이나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운회를 초월하기까지



정 금옥 시저/ 한국 서울 (원문 한국어)

요즘 2000년 5월 8일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서 있었던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를 볼 때마다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다. 강연 제목은 '신을 체험하라' 였는데, 당시 나는 이 강연의 성격과 낮은 여성 강연자의 모습에 적응이 잘 안되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을 찾아왔던 나의 갈망으로 인해 강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나는 강연회장 앞줄에 앉아있었는데, 스승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마치 커다란 불덩이가 가슴에서 목으로 올라오는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 환희가 어찌나 강렬하던지 그 속에 폭 잠기고 말았다. 이 강렬한 체험 때문에 나는 스승님의 헤어스타일과 옷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강연으로 인해 나는 '진리는 오직 하나'이며, 단지 종교를 지칭하는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25년이 넘도록 불교를 믿어왔다. 하지만 불경은 내게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렇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독송하는 게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참선에 보다 시간을 들이게 되었다. 한 스님이 관음보살을 계속 외우라고 해서 나는 25년 동안 앉아서나 걸을 때나 일할 때에도 외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이 나자 죽음과 운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죽고 난 후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자 처음엔 죽음이 두렵게 느껴졌다. 당시 나는 삶과 죽음이 공존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몸이 회복되면서 나는 윤회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한 심리학자가 쓴 ‘전생여행’이란 책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그 후 그의 조언에 따라 전생여행을 하게 되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전생의 고통을 체험하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과는 마지막 3생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체험 후 나는 인생에는 항상 고통이 존재하며, 좋은 일은 언제나 좋지 않은 일과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예전 그 스님이 왜 우리 모두가 해탈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몇 번을 윤회하든 우리 생은 그 이전 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때부터 해탈을 구하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관건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이 큰스님이나 성인들에게나 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으며, 나와 같은 평범한 중생은 언제 해탈할 수 있을지 몰랐기 때문에 매우 답답했다. 많은 경전과 책을 다 뒤졌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너무 답답한 나머지 내 영혼이 사라져 버리길 바랐다. 그런데 그때 마침 기적처럼 서울 강연회에서 스승님을 뵈게 된 것이다! 나는 떨 듯이 기뻐다!

강연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꽤 늦은 밤이었는데, 나는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과 견본책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큰아들이 그 책을 읽고는 당시 한국에서 머물고 계시던 스승님을 뵈고 온 후로 채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채식을 해나갔다. 서울 센터에 가서 비디오를 볼 때마다 하나씩 사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남편은 그것을 보며 감탄하곤 했다. “저 분은 부처님이시군. 틀림없어.” 남편도 스승님을 깊이 믿게 되어 이제 우리 집에는 세 사람이 입문자가 되었다. 이제 막 제대한 다른 아들도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꼈다.

입문하던 날, 나는 몹시 사랑하고 존경했던 친정 아버지의 천도를 위해 기도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 30여 년 동안 거의 내 꿈에 보이지 않았는데, 입문한 지 얼마 후에는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아마 이것은 아버지가 천도되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던 것 같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5대 조상 천도는 정말이었던 것이다. 명상하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고, 이제는 집중할 때 마음이 고요하며 체험도 있다. 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더욱 열심히 명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5년 간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면서도 별 체험이 없었지만, 관음법문을 수행하면서부터는 아주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다. 나는 신실히 기도하면 우리 마음 속에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다고 믿는다. 또 매순간 지혜안에 집중하고자 노력한다. 스승님은 실제로 운명이란 없다고 하셨다. 문제는 우리가 수행을 잘 했는가 여부에 달린 것이다. 이제 나는 우리가 자신의 진아, 영혼을 일깨워야 하며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세세생생 쌓은 장애를 초월해 영원한 해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주적인 인터넷 서비스

칭하이 무상사
1999. 11. 25.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원문 영어)

내면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우주와 다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 우주가 바로 알게 됩니다. 물론 나 역시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걸 압니다. 이 네트워크는 24시간 연결 대기 중인 인터넷 서비스로 무엇을 물어보든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비도 낼 필요가 없지요! 이것이 깨달음의 경이로운 점입니다.

미친 세상 속의 전능한 보호력

칭하이 무상사
1994. 10. 29.
미국 버지니아 단체명상
(원문 영어)

사실 이 세상은 미쳤습니다. 곳곳마다 늘 일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이미 그 힘이 증명된 수행과 신심을 통한 영적인 힘뿐입니다. 누구든 입문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진해왔다면, 전능한 신이 주신 이 보호력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 힘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신이 여러분 내면에 있고 불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지요. 모든 종교 경전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고대의 깨달은 사람의 수행 체험이 들어 있으므로, 그 책들이 수 천 년 전 것이라 해도 현재 우리 자신의 내면의 수행 과정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에는 성경의 그 모든 말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힘

칭하이 무상사
1994. 9. 29.
싱가포르 단체명상
(원문 영어)

여러분은 일이 힘들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이 에너지를 쏟아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7개의 차크라가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 모을 테니까요. 그 차크라들은 건전지처럼 우주의 힘을 자동적으로 충전시키므로 우리는 항상 이 육신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할 때 이 힘은 더욱 커지며, 줄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결코 끊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업장이라든가 사람을 돕는 것, 업장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힘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몸을 볼 수 있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그 긍정적인 생각 하나 하나가 오오라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외모와 내면의 에너지를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가 더욱 넘치고 건강해지지요.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나쁜 혹은 비참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의 오오라 모습들도 즉시 바뀌게 됩니다.

Quan Yin Web Sites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members.mweb.co.th/godsdirectcontact/> (태국-태국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 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 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c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전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jhbcnt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감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smkampalacenter@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meloo.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yahoo.com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innermelody@vianw.com.ar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DF	센터	52-55-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sinfon.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Ms. Maritza E.R. de Leone	507-236-7495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5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p@bonus.com.pe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chinghailimaperu@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h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l@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Armand Laplante	613-740-1017 er574@freenet.carleton.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97-0650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jsung66@shaw.ca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oceanoflove@prismnet.bc.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ArizonaCtr@yahoo.com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r. & Mrs. Kenny Ngo	HughMDCenter@yahoo.com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bobj@arkansas.net	bce94@hotmail.com	
캘리포니아 :		센터	1-248-370-2924
*로스앤젤레스:			smmicenter@yahoo.com
	센터		quach001@msn.com
	Mr. & Mrs. Tsung-Liang Lin		
	tlilin54@hotmail.com		
	Mr. & Mrs. Dong Phung		
	SanGabriel99@hotmail.com		
	Mr. Gerald Martin		
*새크라멘토	gmartin0999@hotmail.com		
	Mr. & Mrs. Hieu De Tu		
	Saccenter.ca@usa.com		
*샌디에이고	센터		
	quanyinsd@juno.com		
	Mr. & Mrs. Tran Van Luu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Mr. & Mrs. Khoa Dang Luong		
	Mr. & Mrs. Dan Hoang		
	sfcenter@hotmail.com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Sophie.Lapaire@eng.sun.com		
	Mr. & Mrs. Edgar Shyuan		
	Edgar-Teresa@worldnet.att.net		
	Mr. Loc Petrus		
	petrusl2k@earthlink.net		
	Mr. Jim Su		
	sumajim@aol.com		
	Mr. James Kiet Le		
	James_Le@adaptec.com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torahi@ureach.com		
플로리다 :			
*케이프 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Ms. Trina L. Stokes		
	tls77@aol.com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ekalbekim@yahoo.com		
조지아:	센터/ Bhiksuni Chan Mo		
	GeorgiaCnt@aol.com		
	Mr. James Collins		
	Ms. Kim Dung Thi Nguyen		
하와이 :	센터		
	hawaiictr@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DorothySakata@aol.com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caominhlamtran@hotmail.com		
	Mr. & Mrs. Sang-Yoon Lee		
	ilovesuma@yahoo.com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duchanh@aol.com		
캔터키 :	Mr. & Mrs. Nguyen Minh Hung		
	FNGUYEN@MAIL.STATE.KY.US		
루이지애나 :	Mrs. Jon L Fontenot		
	jfontenot@hotmail.com		
메사추세츠 :			
*보스턴	센터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Mr. & Mrs. Huan-Chung Li		
메릴랜드 :			
	1-978-436-9982		
	1-602-404-5341		
	1-501-253-8287		
	1-909-674-7814		
	1-626-914-4127		
	1-626-284-9994		
	1-916-682-9540		
	1-619-280-7982		
	1-619-475-9891		
	1-415-753-2922		
	1-415-333-9119		
	1-650-988-6500		
	1-408-463-0297		
	1-510-276-4631		
	1-408-253-8516		
	1-408-262-8233		
	1-303-986-1248		
	1-941-458-2639		
	1-941-415-3963		
	1-407-333-0178		
	1-770-936-9926		
	1-770-934-2098		
	1-404-292-7952		
	1-808-735-9180		
	1-808-988-6059		
	1-773-506-8853		
	1-773-261-4033		
	1-317-293-5303		
	1-502-695-7257		
	1-504-483-3234		
	1-978-436-9982		
	1-508-791-7316		
	1-978-957-7021		
	1-573-761-9969		
	1-573-368-2679		
	1-402-483-4067		
	1-702-242-5688		
	1-973-209-1651		
	1-609-667-3829		
	1-973-335-5336		
	1-505-822-1560		
	1-718-837-4884		
	1-716-256-3961		
	1-704-535-3789		
	1-513-887-8597		
	1-513-381-4554		
	1-405-632-1598		
	1-503-234-1416		
	1-503-614-0147		
	1-503-257-2437		
	1-610-352-7787		
	1-215-879-6852		
	1-512-396-3471		
	1-512-989-6113		
	1-214-339-9004		
	1-972-395-0225		
	1-972-517-5807		
	1-972-206-2042		
	1-281-893-8300		
	1-713-6652659		
	1-281-370-3898		



		DNguyen376@aol.com	육야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tadianingtyas@eudoramail.com	
		Robert.Yuan@Compaq.com	★ 일본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truelove@nth.biglobe.ne.jp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anhly@dotplanet.com		genesis@mb.infobears.ne.jp	
*버지니아 비치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Mr. David Young	1-757-588-8468		cal13840@pop07.odn.ne.jp	
		davidkyoung@hotmail.com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워싱턴 :				y-plus@f6.dion.ne.jp	
*시에틀	Mr. Ben Tran	1-425-643-3649	★ 한국		
		benptran@usa.com	출판사		82-2-2202-8090
	Mr. Edward Tan	1-206-228-8988		chinghai@unitel.co.kr	
		edtan@usa.com	서울	서울 센터	82-2-5772158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quanyim@unitel.co.kr	
		sumaemc@yahoo.com	유태인		82-2-7953927
★ 푸에르토리코			이지자		82-2-599-1701
카리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disnalda@caribe.net		quanyin@kornet.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송호준	82-51-9574552
		shantiragyi@hotmail.com		황상원	82-51-8057283
				이원석	82-51-8946645
			전주	전주 센터	82-63-2747553
				shc5824@hanmail.net	
아시아				신현창	82-63-2729087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인천	인천 센터	82-32-5795351
		armenhovhannisyan@hotmail.com		이재문	82-32-2441250
★ 포모사			대구	대구 센터	82-53-7434450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chinghaidaegu@hanmail.net	
		smchtpe@ms33.hinet.net		김익현	82-53-6333346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한선희	82-53-7675338
		shloh@ndmctsg.hinet.net		차재현	82-53-8563849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대전	대전 센터	82-42-6254801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김수동	82-42-2547309
	Mr. Chu Chen Pei	886-37-724726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조명대	82-62-3946552
카오슝	센터	852-27495534		enlightenment@hanmir.com	
★ 홍콩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안동	안동 센터	82-54-8213043
		lovequanyin@hotmail.com		김삼태	82-54-8213043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 인도				houmri1@kornet.net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제주	제주 센터	82-64-996113
		trust_god@indiatimes.com		센터	853-532231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 마카오		macau_center@email.com
★ 인도네시아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발리	센터	62-361-231-040	★ 말레이시아		
		begodnow@yahoo.com	알로르 세타르		
	Mr. Agus Wibawa	62-81-855-8001		Mr. Chiao-Shui Yu	60-4-7877453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smch-jkt@dnet.net.id		supreme2@tm.net.my	
	Mr. Tai Eng Chew	62-21-6319061		603-9287-3904	
	Ms. Lie Ik Chin	62-21-6510218		klsmch@tm.net.my	
		financel@uei.com		6012-259-5290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klgcp@hotmail.com	
		hai@cbn.net.id		60-4-228-5853	
	Mr. I Ketut P.Swastika	62-21-7364470		pgsmch@pd.jaring.my	
수라바야	센터	62-31-5673084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 몽고		
		harry_1@sby.dnet.net.id	울란바토르	Mrs. Nergui Buzmaa	976-11-364352
				zbadnaa@yahoo.com	
마켈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yudi_wartono@telkom.net	★ 네팔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berlincenter@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ajaystha@hotmail.com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포카라	센터	977-61-28455			49-174-5265242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ngoc-thao.nguyen@gmx.de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dusseldorfcenter@hotmail.com	
		neupanebishnu@hotmail.com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Mr. Shiva Bastola	977-61-28255	빈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pokharacenter@hotmail.com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 필리핀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 그리스		ChingHai@aol.com
	마닐라 센터	632-842-8828	아테네	Mr. Constantine Manos	30-61-278106
★ 싱가포르		manilach@hotmail.com			Razahidah@hotmail.com
	센터	65-674-7001	★ 네덜란드		
	연락인 사무실	chinghai@singnet.com.sg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 스리랑카		65-6846-9237			Vothuong5@cs.com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jean@sol.lk			m.mannaart@planet.nl
★ 태국			★ 헝가리		
방콕	센터	662-674-2694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bkk_c@hotmail.com			heaven.bud@mail.matav.hu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Mr. Lux Tamas	36-309-611994
		edasnlad@samsorn.stou.ac.th		Ms. Dora Seres	36-1379-1924
	Mr. Wu Peir Yuan	66-1-8248294	지울	Mr. Lehel Csaba	36-96-456-452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clehel@freemail.hu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387126	★ 아일랜드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콘캔	센터	66-43-261878			berardleech@unison.ie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 노르웨이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유럽					norwayqq@hotmail.com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 폴란드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091-4874953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sound@gmx.at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 벨기에					czakra@interia.pl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 포르투갈		
		universal@planetinternet.be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1-920-4118
★ 불가리아					lisbon_center@notmail.com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 러시아		
		oldruslan@yahoo.com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플로브디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boulgakov@tri-el.ru
		chinghaiplovdiv@mail.bg	★ 슬로베니아		
★ 체코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dbk@siol.net
		prague-center@chinghai.cz	★ 스페인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zeljko@mindless.com		Ms. Lidia Kong	34-91-7756670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 핀란드			발렌시아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34-96-3336208
헬싱키	Mis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34-96-3744361
		hoanghanh.luong@luukku.com		Vegetarian House	34-96-3726401
	Ms. Anne Nystrom	358-9-793902		Mr. Yu Xi-Qi	
		anne.nystrom@surgeur.fi			valenciachinghai@yahoo.es
★ 프랑스			★ 스웨덴		
파리	센터	33-1-4300-6282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hang.nguyen@spray.se
		ilancelot@celestialfamily.net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widlund@hem.utfors.se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말피	Mr. & Mrs. John Wu	46-40-973452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 독일					mats.gigard@telia.com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옘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premila-perera@pharmacog.uu.se	케네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 스위스				smcanbra@cyberone.com.au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멜버른	센터	613-9890-0320
		gefliu@yahoo.com			Melbsmch@aol.com
	Ms. Klein Ursula	41-22-3691550		Mrs. Rosemary Nagtegaal	61-3-9307-6982
★ 영국				Mr. Pham Van Bon	613-9470-4573
스토크온트렌트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Mr. Alan Khor	61-3-9857-4239
		janet.weller@Zoom.co.uk	퍼스	센터	61-8-9242-1189
런던	센터	44-208-3742743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daveb@inet.net.au
		pnl@matters19.freemove.co.uk		Mr. Ly Van Tri	61-8-9244-7661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시드니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 스코틀랜드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Mr. Hong Bo	61-2-97887588
		lillig@btinternet.com			hongbo_huang@hotmail.com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태즈메니아	Mr. Carly skinner	61-3-62282481
		Robert.jackson@classicfm.net			putters@bigpond.net.au
			★ 뉴질랜드		
*** 오세아니아***			오클랜드	Mr. Kym Anton Toia	649-419-4470
★ 호주					nzanton@yahoo.com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leonadelaide@hotmail.com			takahide@xtra.co.nz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hot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s. Chanwu Wong	649-5340986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 Michael Lin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647-858-3355
		ctieng@telstra.com			hamnzcont@yahoo.co.nz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shale@ihug.co.nz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rayandjulie@linknet.com.au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413-751-0848(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240-352-5643 /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vole@earthlink.net
팩스 :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 886-2-87910860
팩스 : 886-2-87911226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 (886) 2-87873935
팩스 : (886) 2-87870873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 (82) 2-2202-8090
팩스 : (82) 2-2202-8091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 가능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대한민국 칭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mri@unitel.co.kr
전화 : (82) 54-532-5821
팩스 : (82) 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등, 그림 ...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천상의 보석에서 영어 배우기” 행사에서 얻은 것

양 구어루이 사저/ 포모사 타이베이

나는 시후센터에 단체명상을 하러 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매혹적으로 꾸며진 경서실 주위를 서성이게 된다. 특히 매월 정기 선이행사에는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천의와 보석이 전시되는 눈이 즐거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종종 스승님의 창작품에서 나오는 광채로 눈이 어지러울 때까지 실컷 감상한 후에야 흡족한 마음으로 대나무 숲에 명상하러 가곤 했다.

2001년 8월 선이 행사 동안 SM 천의회사는 ‘천상의 보석에서 영어 배우기’ 행사를 열었다. 덕분에 경서실로 가는 즐거움이 더욱 커졌다. 나는 천상의 보석의 영어 및 중국어 이름이 적힌 쪽지들이 들어있는 ‘행운의 뽑기’ 상자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구경했다. 동수들이 한 사람씩 쪽지를 뽑는 모습은 매우 흥미로웠다. 새로 입문한 한 동수는 ‘신의 아이들’이라는 쪽지를 뽑고 얼굴에 아이처럼 수줍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며, ET를 많이 닮은 다른 동수가 ‘UFO’를 뽑았을 때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이 행사에서 한 외국인 사형이 영어 제목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며 가르쳐 주어 우리는 영어 말하기에 대한 용기가 크게 솟아났다!

나도 흥이 나서 쪽지를 하나 뽑았다. 쪽지를 펴자 ‘최고로 영광된 사랑(The Ultimate Glory Of Love)’이라는 영어 단어들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춤추듯 들어왔다. 와! 정말 충격적이었다! 순간 내 가슴은 거대한 사랑의 힘에 감싸여 따스한 기류가 심장을 관통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같은 제목의 반지를 찾아 한번 끼어봤는데, 딱 맞았다. 정말 운이 좋았다.

마음을 진정시킨 나는 반지를 찬찬히 감상했다. 황금의 왕관 부분은 성배(聖杯)를 꼭 닮았고 천국의 장엄과 사랑으로 충만해 있었다. 십자가의 네 끝단에 박힌 루비들은 두 팔 벌려 천지를 날며 아무런 슬픔이나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 순간 스승님과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전에 십자가를 볼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생각나 슬픔과 고통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이 보석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감동과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내가 많이 성장한 듯 하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스승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 향수병에 걸린 어린양들을 위한 일이었음이 가슴 깊이 느껴졌다. 내 손가락에 끼워진 이 반지는 스승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당신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심을 일깨워 주며,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잊지 마세요!’ 라고 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내게 상기시킨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내 가슴은 스승님의 성스러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시후센터 경서실은 언제까지나 나의 ‘쇼핑 천국’ 일 것이다.



천상의 보석

디자인 - 칭하이 무상사

신의 아이들

천상의 보석 발걸이 중 'UFO'



최고로 영광된 사랑



칭하이 무상사의 최신 디자인



“순항 지갑”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을 보신 자비로운 스승님은 천상의 영감을 통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지갑을 디자인하신 후 손수 ‘순항 지갑’이라고 이름짓고 최악의 상황에 처한 세계가 원만해지길 기원하셨다. 이러한 스승님의 사랑

과 축복이 이 시대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지갑은 PVC 인조 피혁 소재로 길고, 작은 두 가지 길이에 흰색, 갈색, 검정 색의 세 가지 색상이 있다.

1. 긴 지갑: 일반형, 앞면에 황금색 SM 로고가 새겨져 있음



2. 작은 지갑: 스승님의 충만한 사랑과 축복으로 제작된 이 ‘SM 순항 지갑’은 아름답고 실용적이며, 매우 독특하다. 앞면에 금색 SM 로고가 양각으로 새겨졌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다. 지갑 가운데에 든 6개의 투명 폴더에는 앞뒤 양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카드를 꽂을 수 있다.